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9
4.정치	11
5.주요산업	13

II.무역

1.수출입	14
2.한국과의 수출입	23
3.수출 유망항목	26
4.무역협정	27
5.수입규제 및 관세	32
6.통관 · 물류	49

III.투자

1.투자환경	55
2.외국인직접투자	60
3.한국기업 투자	62
4.투자진출방식	67
5.외환	71
6.노무	72
7.세무	78
8.지식재산권	80
9.청산 및 철수	82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84
2.비즈니스 에티켓	86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91
4.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92
6.유관기관	96
7.물가정보	101
8.출장정보	112
9.생활정보	114
10.KOTRA 무역관 안내	129
11.전시회 정보	142
	144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벨기에 (The Kingdom of Belgium)
면적	30,528 km ² (자료원 : 벨기에 통계청)
수도	브뤼셀(Brussels)
인구	11,763,650 명 (자료원 : 벨기에 통계청, 2024년 1월 1일)
민족(인종)	○ 민족(인종): 라틴족, 게르만족 ○ 행정 구역별 인구 비율: 브뤼셀 수도 지역 1,249,597명(11%), 플랜더스 지역 6,821,770명(58%), 왈로니아 지역 3,692,283(31%) * 왈로니아 지역 내 독일어 사용 커뮤니티 0.7% 포함 ○ 사용 언어별 인구 비율: 네덜란드어 58%, 프랑스어 42%, 독일어 0.6% (벨기에는 1961년 이후 언어별 인구 조사가 폐지되어, 행정 구역 거주 인구로 사용 언어별 인구 추정치임)
언어	네덜란드어(플랜더스 지방 및 브뤼셀 지방), 프랑스어(왈로니아 및 브뤼셀 지방), 독일어(왈로니아 내 독일어 공동체), 일반적으로 영어도 통용
종교	천주교(44%), 개신교(1%), 정교회(1%), 기타 기독교 종파(3%), 이슬람교(2%), 불교(1%), 무교(41%), 기타(7%)
기후	벨기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여름에는 12-25℃, 겨울 0-10℃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벨기에에서도 기상 이변에 의한 날씨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중 강수량은 약 850mm로 사계절 내내 비와 안개가 잦은 편이다.
국가원수	○ 국가 원수: 필립(Philippe, 제7대 국왕, 2013년 7월 21일 취임) ○ 연방정부 총리: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2020년 10월 1일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01-03-23 (자료원 :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상표보호 각서교환	1962-01-16		
사증면제협정	1970-01-01		
항공협정	1975-10-10		
창업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 협정	1976-09-02		
투자보장협정	1976-09-03		
경제협력협정	1978-06-05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09-19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81-03-03		
문화협정	1982-10-19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1990-01-10		
이중과세방지협정 보조 협약 개정	1996-12-31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9-07-01		
항공협정 개정	2011-01-01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과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11-03-27		
형사사법공조조약	2012-09-29		
워킹홀리데이 협정	2014-04-01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개정	2015-12-01		
취업관광 프로그램 협정	2016-07-02		

한국교민 수

1,135 명 (자료원 : 재외동포청, 2023년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6년 7월부터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 2014년 4월 브뤼셀에서 체결되었던 한국-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프로그램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2개월간 유효하며 참가자 숫자는 한 해 200명으로 제한된다. 근로 혹은 학업을 부수적으로 취하는 것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체류 기간 도중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만 18~30세 이하인 국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이해 폭이 넓혀지고 나아가 한국과 벨기에 협력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9년 3월, 필립 벨기에 국왕 방한 : 벨기에 국왕은 1992년 이후 27년만인 2019년 3월 26일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3박 4일로 진행된 국왕의 방한에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한국-벨기에 비즈니스 포럼, 스마트시티 세미나, 경제인과의 오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벨기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01년 수교 후,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하는 동시에,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화학, 제약, 물류 산업 등 기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등 신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추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한에는 벨기에 정부인사, 80명의 기업총수, 대학 총장 등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했다.
- 2020년 5월, 양국 정상 코로나 대응 위한 정상통화 : 필립 국왕은 5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벨기에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의 마스크 지원에 감사의견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 내 코로나가 확산되자, 한국전쟁 당시 총 3,498명을 파병 지원해준 벨기에에 마스크 2만 장과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양측 정상은 코로나 극복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 2022년 8월 4일 벨기에 미셸 호프만 (Michel Hoffman) 국방 총장은 벨기에-한국 간의 군사 교류 확대를 위해 방한했다. 호프만 총장은 합동 참모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벨기에가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호프만 총장은 또한 한국의 제 2함대 사령부와 도라 전담대 등의 안보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같은 벨기에 국방 총장의 방문은 한반도 안보상황 이해와 양국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한국-벨기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 2019년 11월 13일 한국과 벨기에 간 제약-바이오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2017년 처음 개최된 후 4회차를 맞는 행사로 같은 해 3월 벨기에 국왕 방한 사절단의 서울행사 후속사업으로 진행됐다. 국내 및 벨기에 분야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비롯해 벨기에 바이오 클러스터(FlandersBio, BioWin)와 현지 유망 제약-바이오테크 기업 CEO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뿐만 아니라, 세계적 제약-바이오 강국인 벨기에의 기술력과 한국의 자본 시장 연결 시도를 통해 양국 간 협업 추진을 보다 가속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벨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는 올해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로 향후 우리 기업들과 벨기에 관련 업체 간 기술이전, 공동연구, 투자 등 협업을 통한 제약 바이오의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2021년 3월,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화장품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 아마존코리아-화장품 컨설팅 기업 바이오리우스(BIORIUS) 및 벨기에 바이어 6개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이 행사는 유럽 화장품 시장 필수 인증절차 및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유력 잠재바이어의 구매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화장품기업들의 성공적인 유럽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화장품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동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매칭된 벨기에 바이어사와의 120건 화상상담이 진행되었다.
- 한국-유럽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개최 : 2021년 10월,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유럽 연합 집행위 및 BSMA Europe, 플란더스 백신 등 현지 백신관련 정책기관, 협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백신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행사를 통해 양측 기업 간 공동 R&D 및 위탁생산, 원부자재 공급 등 협력 추진을 통해 백신사업 생태계 고도화 및 글로벌 백신 허브 실현을 위한 협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실본부장 등 양측 고위급 인사를 비롯 국내 외 유관기관 및 현지, 국내 기업 15개사 등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 한국 유미코아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연구소 개소 : 2022년 5월, 벨기에 기업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Umicore)사의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연구소가 천안에 준공되었다. 벨기에 유미코아 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및 배터리 재료를 생산하는 소재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양극재 생산 선두업체 중 하나로 1991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 및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사의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 개발 시설로 5년간 총 360억원 투자 및 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전망이다.

○ LS전선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벨기에 공급 계약 체결 : 2023년 5월, LS전선은 벨기에 안데눌(Jan De Nul), 데니스(Denys)사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북해 해상 풍력 단지과 독일과 네덜란드 내륙을 HDVC 케이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525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화

○ 벨기에 왕립미술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 : 연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벨기에 최대 규모 미술관인 왕립 미술관에서 2018년 10월부터 비유럽권 언어 최초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ASEM 정상회의 동행차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19일 진행된 서비스 개시식에 참석했으며, 한국인이 벨기에 예술의 정수를 더 가깝게 관람할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 세계 주요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었는데, 기존 60개 작품에서 36개가 추가되어 총 96개 작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2013년 11월 설립되었으며, 금요 영화제, 전시회, 공연, 요리 및 문화강좌,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벨기에 겐트 대학교 송도 캠퍼스 설립 : 2014년 9월 1일 벨기에의 겐트 대학교가 인천 송도에 생명공학자 육성을 위한 캠퍼스를 설립했다. 겐트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하는 최초의 유럽대학으로 분자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등 총 3개의 학부과정이 있으며 졸업 시 본교 학위가 수여된다. 이 밖에도,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는 2017년 11월 30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지도 및 전문기술, 학술 인프라 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 농업기술 발전 위한 협력연구를 추진 중이다.

○ 2021년 한-벨 수교 120주년 : 2021년은 한국-벨기에가 수교를 맺은 지 120년 되는 해로 양국 간 다양한 문화적 협력행사가 개최되었다. 3월에는 수도 브뤼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대형 상징물이 부착된 트램 래핑 광고, 공공외교 플랫폼 '미디어아트월' 내 한국작품 전시 등이 진행되었으며 9월에는 브뤼셀에서 대규모 K-festival 행사가 개최되어 수만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2022년 4월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메이드인 아시아 박람회에서 한국 문화원은 K-팝과 오징어 게임을 선두로 높아진 한류 인기를 반영해 한국 문화존을 운영했다. 메이드인 아시아 박람회는 벨기에에서 가장 큰 아시아 문화 축제로 2008년부터 시작해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으며 현재는 10만여 명 규모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한국 콘텐츠 및 관련 부스는 2015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점차 참여 부스와 방문객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 2023년 4월 개최된 제 41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BIFFF)에서 외계인, 데시벨 등의 총 10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약 3,500명의 관람객이 한국 영화를 관람하였다. 또한 2023년은 한국과 EU가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로 6월에 브뤼셀 시내 광장에서 각종 한류 문화 체험행사를 비롯한 각종 공연, 및 국내 중소기업 20여개사의 오프라인 판촉전을 주축으로 한 한류 콘텐츠 축제 한류타운이 개최되었다.

○ 2023년 6월,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문화를 현지에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류 콘텐츠 축제; 한류타운>이 개최되었다.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수출 인증 획득 과정,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들과 매칭하는 B2B 수출 상담회를 시작으로, 케이팝 공연과 각종 부대행사, 중소기업 상품 판매 부스, 한식 판매 부스, 한복 체험 부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 약 40여 개의 부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 2024년 4월 20일, KBS 뮤직뱅크가 벨기에 안트워프에 있는 유명 공연장(Sportpaleis)에서 열렸다. 동 행사에는 투머로우 바이투게터 (TXT), 스테이씨(STAYC), 원어스(ONEUS)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라이즈(RIIZE), 그리고 여자아이들((G)I-DLE)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여섯 팀의 케이팝 그룹이 참가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벨기에 현지 케이팝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5.3	6.9	3	1.4	
명목GDP (십억\$)	525.6	601.3	584	632.4	
1인당 GDP (PPP, \$)	55,720	62,202	68,536	71,120	
1인당 명목 GDP (\$)	45,545	51,967	50,170	53,991	
정부부채 (% of GDP)	111.2	108.4	102.6	103.1	
물가상승률 (%)	0.4	3.2	10.3	2.3	
실업률 (%)	5.6	6.3	5.6	5.5	
수출액 (백만\$)	421,880	549,170	638,630	577,990	
수입액 (백만\$)	398,004	527,422	621,540	562,023	
무역수지 (백만\$)	23,876	21,748	17,090	15,967	-
외환 보유고 (백만\$)	19,470	28,566	28,023	25,735	
이자율 (%)	0	0	2.5	4.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14	1.18	1.05	1.08	

<자료원 : World Bank, 벨기에 중앙은행, Statista, IMF>

나. 경제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020년에 경제성장률이 -5.3%였던 반면 이후 2021년에 6.9%, 2022년에 3.0%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2024년 1.1%로 하락했다. 이에 벨기에는 총 52.9억 유로 규모의 EU 회복·복원력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으로, 재생에너지, 철도 인프라 개선, 디지털 교육 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2026년 8월 이내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2025년에 관련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 반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25년에는 1.4%로 회복한 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평균 1.7% 수준으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경제 전망

벨기에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10.3%로 4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벨기에에는 에너지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여 2023년에 인플레이션율이 2.3%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의 단계적인 정부 지원 폐지 조치로 인플레이션율이 2024년 4.0%로 2023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2.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사회 비용, 노령 관련 비용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로 인해 2020년 9%까지 치솟은 벨기에의 재정적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4.7%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4.6%로 소폭 감소했다. 2025년에는 경제 회복세와 EU 집행위원회의 권고로 EU 초과 재정적자 절차가 개시될 예정으로 재정적자가 3.7%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 국가형태

1980년 독립 당시, 제헌헌법에 의거해 중앙집권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양대 언어권 (프랑스, 네덜란드어)의 갈등 고조로 1970년부터 6차례의 국가개혁 (1970년, 1980년, 1988~89년, 1993년, 2001년, 2011년) 및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는 각각 대등한 자격을 가진 3개의 지방정부(Region : 브뤼셀, 플란더스, 왈로니아)와 3개의 언어권 공동체 (Communities :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연방제 국가형태를 띠고 있다.

* 언어권 공동체는 문화, 교육 등 주로 '사람'에 관련된 정책, 지방정부는 경제, 도시계획, 환경 등 주로 '토지'에 관련된 정책,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조세 정책 등을 각각 담당

○ 정부형태

입헌 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이며,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상징적 대표인 동시에 국정의 중재자이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일반적 정치 상황에서 국왕의 역할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 (제안(suggest), 조언(advice), 주의(warn), 고무(encourage) 등) 하는 것이다. 명목상 국왕과 내각에 공동으로 행정권이 있으나 실제로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치적 위기 시에는 의회해산 등 국왕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다. 의회는 양원제 형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의원 60명, 하원의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강력한 지방자치제

플란더스, 왈로니아, 브뤼셀 등 3개 지방정부가 각각 대등한 자격으로 중앙 정부와 더불어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전국은 9개주 (Province)와 586개구(Commune)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 마다 독립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및 언어권공동체 정부는 각각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 구역 내에서 큰 자치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국제 협정에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공동 권한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헌법상 지역정부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연방정부에 서명 권한을 부여해야만 연방정부의 서명이 가능하다.

*2016년 10월 EU-캐나다 포괄적경제동맹협정(CETA) 서명 당시 왈로니 지역정부가 CETA에 대한 반대로 연방정부에 서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벨기에의 협정 서명이 일시 지연된 사례가 있음

○ 선거제도

선거구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최신동향

○ 벨기에 국왕

현재 벨기에 국왕은 필립(Philippe) 국왕으로 2013년 7월 즉위했다. 즉위 이후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필립 국왕은 벨기에 국왕으로써는 처음으로 2020년 민주 공화국 60주년을 계기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022년에는 마틸드 왕비와 함께 공화국 공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재차 유감을 표명, 전통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기존 왕실의 태도와 달리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부채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2023년, Le Soir, Het Laatste Nieuws 등의 현지 언론사가 필립 국왕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55%가 필립 국왕의 역할 수행에 상당히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조사 참여자의 58%가 대외관계 측면에서 필립 국왕이 훌륭하게 벨기에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벨기에 정부

현재 벨기에 정부는 알렉산더 드크루(Alexander De Croo)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연립 정부이다. 2019년 5월 총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사상 최대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하였고, 이후 2020년 10월 3일 열린 블람스 자유당(Open VLD) 소속의 알렉산더 드크루를 총리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언어권 사회당(PS, SP.A), 자유당(MR, Open VLD), 녹색당(Ecolo, Groen) 및 네덜란드어권 기민당(CD&V) 등 총 7개 정당이 참여한 소위 비발디 연정* 구성되었다. 알렉산더 드크루 정부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선결과제로 두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정책방향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 발전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발디 연정 : 각 언어권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환경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4세력이 비발디의 사계를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붙여진 호칭

○ 러-우 사태

러-우 사태 발발 이래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에 3억 3천3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11월 알렉산더 드크루 총리 및 라비브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벨기에의 지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 2024년 선거 결과

벨기에에서는 5년마다 총선이 치러지며, 2024년 6월 9일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 우파 성향의 N-VA가 하원 150석 중 24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등극했다. 극우 정당인 Vlaams Belang가 총 20석을 확보하며 제2당을 차지하였으며, 중도우파 MR, 중도좌파인 PS, 급진좌파인 PTB-PVDA 등의 12개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선거 다음 날인 6월 10일, 벨기에 총리 알렉산더 드크루(Alexander De Croo)는 소속 정당인 Open Vld가 2019년 선거 대비 5석이 감소한 총 7석을 확보하면서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으며,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전까지 임시 총리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제1당 N-VA의 당대표인 바르트 드 베버르(Bart De Wever)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필립 국왕의 요청에 따라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 중이다.

○ 2024년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 현황

벨기에 국왕은 선거 이후 6월 12일 제1당 N-VA 당대표인 바르트 드 베버르를 연립정부 구성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바르트 드 베버르는 MR, CD&V, Vooruit 등의 5개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회담을 주도해 왔으나, 협상 결렬로 8월 2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바르트 드 베버르 사임 후, 벨기에 국왕은 당 지도자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9월 2일 바르트 드 베버르를 연립정부 구성 위원장으로 재임명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바르트 드 베버르는 연금, 사회보장 등의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과 세제 개혁을 통해 벨기에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을 타협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중도좌파 정당인 Vooruit가 타협안에 반대,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보장과 보호를 포함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만장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언론은 추가 협상기간인 11월 12일까지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시, 사회 경제적 개혁, 조세 정책, 예산 분배를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인해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벨기에의 국제 관계

벨기에에는 EU와 NATO의 본부가 소재한 국가로서 유럽 통합 및 방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N의 다자외교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벨기에에는 2019~2020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다. 당시 소피 윌메스(Sophie Wilmes) 외교부장관은 "다자주의는 벨기에 외교의 핵심 가치"라고 언급했으며, 2037~2038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벨기에에는 이미 여섯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1947~1948, 1955~1956, 1971~1972, 1991~1992, 2007~2008, 2019~2020). 또한 벨기에에는 서유럽의 교차점에 있으며, 유럽 통합에 기여하여 유럽에서 중심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러·우 사태와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 및 유럽연합 단합 강화를 강조했다.

○ 벨기에의 아프리카 외교

벨기에에는 콩고와 르완다를 식민 지배했던 국가로써, 당시의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동 아프리카 주요 분쟁지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남아프리카의 백신 보급 및 mRNA 백신 생산 지원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Afrigen과 함께 자동화된 소형 실험실을 구축, 백신용 RNA를 생산하였다.

라. 정책 · 법령

○ 법령체계

벨기에의 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크게 연방법과 지역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벨기에의 법률체계는 크게 5가지의 위계로 나눌 수 있다.

- 헌법
- 특별법
- 법률, 대통령령, 법률명령
- 왕령, 정부시행규칙
- 부령

○ 벨기에 에너지 정책

벨기에에는 EU에서 원전이 있는 13개 회원국 중 하나로, 2022년 10월 Doel 3, 2023년 2월 Tihange2가 가동을 중단하며 현재 총 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벨기에에는 탈원전 정책기조로 기존 원전 모두를 2025년까지 폐쇄하기 위해 폐쇄 시기와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율해 왔으나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가스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2년 3월, Doel 4와 Tihange 3 원전 2기의 폐쇄 기일을 203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벨기에는 대한민국 경상남북도 크기의 좁은 국토와 부족한 인적자원 (2023년 기준 1,170만 명) 등의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등을 통해 극복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따라서 벨기에는 대외경제 변화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EU 내 가장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벨기에의 GDP대비 교역비중은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편으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GDP 대비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또한 벨기에는 1807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공업 국가로 섬유, 철강, 화학 및 기계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가 '20년 발표한 '글로벌 공업경쟁력지수(The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Index)'에서 152개 국가 중 12위 차지(2020년 기준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한국, 4위 미국, 3위 일본)한 바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주요 산업은 제약, 화학, 자동차, 물류 등이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제약·의약산업

벨기에는 유럽 내 의약 분야 집약도 1위 국가이자 유럽 내 제약 수출 3 위국으로 바이오테크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국적의 제약기업인 갈라파고스(Galapagos NV), 안센(Janssen Pharmaceutica), UCB를 포함, 전 세계 30대 글로벌기업 중 29개 사가 벨기에에 진출해 있다. 벨기에 정부는 제약 및 화학 분야에 국가 전체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다국적기업과 협력 진행 중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백신 기지 유치 및 생산·유통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귀 질환 치료제 및 백신 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현지 기업들에 대한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의 인수합병 및 투자 또한 진행 중에 있다.

○ 화학산업

안트워프 항만 근처에 위치한 석유화학 클러스터는 유럽 최대 규모로, 전 세계 10대 화학 기업 중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4분기 벨기에 화학산업 총 매출액은 134억 유로로 약 32만 명을 직간접 고용하고 있다. EU의 기후 대응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 실현을 위해 1,100만 유로 규모의 신생 화학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민간 파트너십인 블루캠(Blue Chem) 및 산업 탈탄소를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문샷(Moonshot)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부문 및 지속가능한 운송에 23억 유로 투자, 약 780여 건의 공공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 유명 기업으로는 특수폴리머, 플라스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솔베이(Solvay),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유미코아(Umicore) 등이 있다.

○ 물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벨기에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산업이 발달하여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운다. 유럽의 3대 항인 앤트워프항(이 외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을 중심으로 물류가 발달했으며, 2022년 4월 앤트워프항과 지브뤼헤(Zeebrugge)항이 합병되면서 유럽 1위 수출항으로 등극하였다. 앤트워프-제브뤼헤 항구는 2023년 1분기에만 총 6,870톤의 물동량을 소화하였다. 내륙항인 앤트워프항은 화학제품의 취급 및 저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브뤼헤항은 Ro-ro(Roll-on/roll-off) 자동차, 컨테이너, 액화석유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오스텐트항은 건화물(dry bulk)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 자동차

벨기에는 자체 자동차 브랜드는 없으나 포드(Ford), 볼보(Volvo), 아우디(Audi), 도요타(Toyota) 등 외국 브랜드들이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이며, EU의 전기차 전환추세에 맞춰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산업의 벨기에 직간접 고용인구는 약 36만 명에 달한다.

○ 식품·음료

벨기에는 초코릿과 맥주의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벨기에 초코릿은 높은 수준의 코코아 함량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규정과 품질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벨기에내 초코릿 생산량은 58만톤에 규모이며, 매출액은 약 55억 유로에 달해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맥주 산업은 전통적인 방법과 다양한 방식을 통합한 양조기술로 다양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텔라(Stella), 레페(Lefte), 주필러(Jupiler) 등의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AB InBev사가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벨기에는 전통적인 무역 강자로 유럽 3대 항구 중 하나인 앤트워프항을 기반으로 중계무역이 크게 발달한 국가이다. 주요 교역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며, 매년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벨기에 전체 수출입 총액의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교역 동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는 의약품, 광물성 연료, 자동차 등이 있고, 주로 수입하는 품목 역시 의약품, 자동차, 유기화합물, 기계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과 비슷하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23년 벨기에는 수출 약 5,648억 달러, 수입 약 5,481억 달러로 무역수지 약 16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3.6% 증가한 수치다. 수출액 순위에서는 세계 11위를 차지하여 2023년에도 전통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2023년 벨기에의 주요 수출국은 인접 국가인 독일(18.6%), 프랑스(13.5%), 네덜란드(13.1%)로 이들 국가와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45.2%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국 역시 네덜란드(19%), 독일(12.1%), 프랑스(10.3%) 순으로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었을 뿐 주요 수출국과 동일한 국가들이며, 이 세 국가와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41.4%를 기록했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9,278,553,612
2	프랑스	39,636,172,141
3	네덜란드	34,512,191,848
4	미국	25,872,795,573
5	영국	17,901,249,771
6	이탈리아	14,480,047,802
7	스페인	8,416,817,052
8	중국	7,679,520,735
9	폴란드	7,047,777,163
10	스웨덴	5,477,694,07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6,029,027,297
2	프랑스	53,325,748,596
3	네덜란드	47,916,477,246
4	미국	26,891,877,226
5	영국	24,140,565,274
6	이탈리아	16,033,987,995
7	스페인	10,443,526,289
8	폴란드	9,480,334,935
9	일본	8,326,730,949
10	인도	7,492,906,67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3,375,188,769
2	네덜란드	66,213,689,523
3	프랑스	58,124,383,000
4	미국	31,455,969,176
5	영국	23,790,735,173
6	이탈리아	17,901,363,855
7	스페인	12,041,193,855
8	폴란드	10,207,556,786
9	일본	9,782,885,711
10	나이지리아	7,735,047,39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4,293,543,905
2	네덜란드	53,111,400,519
3	프랑스	49,979,517,967
4	미국	27,871,789,760

5	영국	23,454,260,142
6	이탈리아	18,216,520,387
7	스페인	11,242,448,004
8	폴란드	10,490,725,540
9	스웨덴	7,274,513,789
10	중국	6,913,843,361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56,612,297,219
2	독일	43,098,636,066
3	프랑스	33,195,106,318
4	미국	15,719,317,906
5	이탈리아	14,525,178,928
6	영국	11,143,175,142
7	중국	9,598,765,594
8	일본	9,171,345,204
9	스위스	8,133,247,147
10	스페인	7,181,528,66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83,421,079,252
2	독일	63,472,711,984
3	프랑스	40,677,323,742
4	미국	19,488,138,398
5	이탈리아	17,297,222,512
6	중국	12,842,188,552
7	영국	11,517,433,630

8	스페인	8,983,392,494
9	일본	8,923,570,078
10	스위스	8,381,087,50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98,122,916,494
2	독일	55,471,825,155
3	프랑스	49,880,424,343
4	영국	29,714,460,742
5	미국	25,173,177,993
6	이탈리아	20,709,459,627
7	노르웨이	17,646,715,310
8	중국	16,051,457,681
9	러시아연방	11,055,472,606
10	스페인	9,420,841,26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88,094,077,168
2	독일	52,245,927,231
3	프랑스	48,438,882,469
4	미국	28,091,772,243
5	이탈리아	16,228,438,109
6	영국	14,714,636,465
7	중국	14,327,552,322
8	스위스	10,508,829,571
9	스페인	10,271,963,530
10	노르웨이	9,480,999,44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2년, 러-우 사태 및 EU의 대러 제재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벨기에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HS 코드: 27) 품목의 수출입이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벨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에서 주변 국가로 수송할 때 주요 경유지였으며, 2022년에도 러시아 외 다변화된 공급망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로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한편, 2023년에는 에너지 물가가 비교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광물성 연료의 수출입 총액은 2022년 수준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러-우 사태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벨기에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의약품, 광물성 연료, 자동차, 보일러·기계,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철강, 전자기기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 역시 광물성 연료, 의약품, 자동차, 보일러·기계, 전자기기,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철강 등의 품목이 상위 항목에 포함됐다(HS 코드 2단위 기준).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9,069,791,483
2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1,551,906,356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447,786,424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7,293,268,126
5	271019	기타	6,322,072,507
6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5,562,790,878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3,475,636,658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460,832,076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238,947,725
10	300439	기타	3,132,636,91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37,036,734,959

2	300490	기타	20,384,797,742
3	271121	천연가스	10,811,321,607
4	271019	기타	8,982,275,276
5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8,845,594,785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8,502,381,905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835,534,532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673,095,856
9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5,287,541,843
10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193,034,28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121	천연가스	49,194,542,599
2	300241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35,947,291,360
3	300490	기타	24,157,339,419
4	271019	기타	16,278,424,280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933,957,250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9,034,917,454
7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8,141,377,238
8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6,707,713,523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121,605,669
10	271600	전기에너지	6,074,872,663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25,022,057,552
2	300241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8,301,309,445

3	271019	기타	16,250,958,743
4	271121	천연가스	15,668,088,798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955,454,068
6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9,356,659,238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9,338,699,551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6,769,483,505
9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5,137,726,243
10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 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 외한다)	5,081,932,168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4,935,404,60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857,143,649
3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7,728,209,566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515,749,877
5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5,410,342,532
6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 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 외한다)	4,527,236,983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4,195,417,361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4,146,048,693
9	271019	기타	4,133,974,299
10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 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3,749,382,74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462,886,323
2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7,022,105,361
3	271121	천연가스	16,319,712,036
4	300490	기타	14,900,584,805
5	293499	기타	11,421,721,007
6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670,732,287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566,142,145
8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078,280,198
9	271019	기타	5,804,259,485
10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 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5,392,138,55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121	천연가스	51,154,736,14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566,181,077
3	300490	기타	20,580,910,567
4	300241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2,138,304,611
5	271111	천연가스	11,403,111,430
6	271019	기타	11,014,271,732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378,891,069
8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8,111,311,551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435,893,396
10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438,681,626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1,980,491,691
2	300490	기타	19,299,280,137
3	271121	천연가스	18,313,741,170
4	300241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12,433,853,394
5	271019	기타	9,245,676,297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9,191,187,445
7	293379	그 밖의 락탐	7,626,857,842
8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693,664,296
9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 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 외한다)	6,522,775,953
10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6,422,157,930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다. 양국 간 교역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과 벨기에 간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벨기에에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의약품, 합성수지, 축전지, 윤활유, 전기자동차가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의약품, 백금, 기타자동차, 펌프, 사진영화용재료, 가축육류가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4년 1~9월에 한국의 벨기에에 수출액은 약 33억 386만 달러, 수입은 약 11억 9,331만 달러로, 한국이 약 21억 1,054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1~9월 기준, 한국의 벨기에에 수출액 33억 386만 달러는 전년도 같은 기간 수출액인 40억 2,656만 달러에 비해서 17.9% 감소하였다. 2024년 1~9월에 한국의 벨기에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1억 9,331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수입액인 15억 9,159만 달러에 비해 25.0% 감소했다. 2024년 1~9월의 무역수지는 약 21억 1,054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무역수지인 약 24억 3,497만 달러에 비해 13.3% 줄어들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2,753	1,552	1,201
2021	4,438	3,424	1,014
2022	5,029	3,130	1,899
2023	5,025	1,944	3,081
2024	3,304	1,193	2,1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4년 1~9월 기준 한국의 벨기에로의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의약품, 합성수지, 축전지, 윤활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약품의 경우 2024년 1~9월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8.8% 증가하였고, 2023년도에는 2022년에 비해 8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4년 1~9월 기준, 한국의 벨기에산 수입 품목으로는 의약품, 백금, 기타자동차, 펌프, 사진영화용재료, 가축육류, 기타 금속광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타 금속광물의 경우 2024년 1~9월에 전년도 대비 122.3%라는 큰 폭의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251	건설중장비	902	1	900

2	2262	의약품	353	564	-211
3	2140	합성수지	417	43	373
4	8352	축전지	286	0	286
5	1336	윤활유	172	6	165
6	7414	전기자동차	299	49	249
7	7411	승용차	269	0	269
8	7419	기타자동차	196	49	147
9	6134	아연도강판	179	0	179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70	47	12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251	건설중장비	443	1	442
2	2262	의약품	357	331	26
3	2140	합성수지	328	31	297
4	8352	축전지	192	0	192
5	1336	윤활유	159	4	155
6	7414	전기자동차	157	10	147
7	7411	승용차	151	0	151
8	7419	기타자동차	137	57	80
9	6134	아연도강판	129	0	129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07	27	8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353	564	-211
2	1113	백금	0	141	-142
3	7419	기타자동차	196	49	147
4	7112	펌프	44	50	-6

5	2250	사진영화용재료	1	62	-61
6	0221	가축육류	0	43	-43
7	1190	기타금속광물	0	20	-21
8	0112	서류	0	45	-46
9	1340	천연가스	0	0	0
10	2140	합성수지	417	43	37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357	331	26
2	1113	백금	0	63	-63
3	7419	기타자동차	137	57	80
4	7112	펌프	20	47	-27
5	2250	사진영화용재료	1	46	-45
6	0221	가축육류	0	34	-34
7	1190	기타금속광물	0	33	-33
8	0112	서류	1	32	-31
9	1340	천연가스	0	32	-32
10	2140	합성수지	328	31	29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ESS (Energy Storage System)

HS CODE	8507	수입액 (US\$백만)	54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8
선정사유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 전환 및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와 같은 EU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벨기에 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 할 수 있는 ESS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동향	유럽의 ESS 시장은 영국과 독일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벨기에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홈 배터리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보조금 지급 정책을 2024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쟁동향	ESS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 및 일본, 중국 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진출방안	국내에서 제조되는 ESS의 경우 현지에서 조달, 제작, 시공 등 실제 소비자에게 설치까지 가능한 EPC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는 등 현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해상풍력 및 에너지 플랜트 건설

선정사유	현재 EU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화석 연료 탈피 정책이 추진되며 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확대되고 있다. 벨기에에는 북해의 연안국으로 2023년 4월, 벨기에를 포함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영국 총 9개국 정상들이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만나 유럽의 해상풍력 및 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선언했다. 따라서 벨기에를 중심으로 향후 해상 풍력 및 관련 에너지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에너지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동향	벨기에의 해상 풍력발전소는 북해를 중심으로, 현재 8개 단지에서 2.261MW 전력을 생산중이다. 하지만 2026년까지 2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계획중에 있다.
경쟁동향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해상풍력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미 유럽 내 글로벌 설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023년 3월 일본의 최대 발전소 JERA 가 벨기에의 해상풍력 플랫폼인 Parkwind를 인수하는 등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 역시 대규모 수주사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품 공급 등 협력을 통한 조달 사업 참여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출방안	현지 언어 및 네트워크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벨기에 유망 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또한 벨기에 시행사의 한국 관련 장비 수급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지 설비, 건설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조달 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23.10.31. 한-EU 디지털 무역협정협상 개시
A (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1991-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5-01-01	
CU(Customs Union)	튀르키예	1995-01-01	1995-12-31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2015년 현대화 협상 시작, 2019년 중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1999-01-01	2017년 현대화 협상 시작, 2019년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년 현대화 협상 시작, 2014년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2016년 현대화 협상 시작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현대화 협상 2023년 마무리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_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그라나다, 앤티가바부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2008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_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2019년 현대화 협상 시작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태평양(Pacific)	2011-05-01		잠정 발효_파푸아뉴기니(2013년), 피지(2014년), 사모아(2018년)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_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과라(2013년)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_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2013년)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 발효_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2016년), 모잠비크(2018년), 나미비아(2019년)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2023년 수정
S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S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CEPA(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모로	2009-08-29	2019-02-01	잠정 발효, 2019년 현대화 협상 시작
GA(Global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20-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제도(태평양)	2009-10-16	2020-05-17	잠정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온두라스	2012-06-29	2024-05-01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2018-06-30	2024-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2023-06-19	2024-07-01	
SIFA(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앙골라	2023-11-17	2024-09-01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DTA(Digital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23년 10월 협상 시작	
GASSA(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미국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 진행 중	
CMA(Critical Minerals Agreement)	미국	2023년 6월 협상 시작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2007년 협상 시작, 2013년 협상 중단 후 2022년 협상 재개 FTA 외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GIA(Geographical Indications Agreement) 협상 중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13년 협상 시작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2013년 협상시작, 2014년 협상 중단 후, 2023년 협상 재개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2015년 협상 시작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2016년 협상 시작	
AA(Australia Agreement)	호주	2018년 협상 시작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타지키스탄	2023년 2월 협상 시작	
DTA(Digital Trade Agreement)	싱가폴	2023년 7월 협상 시작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2023년 6월 협상 마무리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0년 협상 시작, 2024년 협상 중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2019년 7월 협상 마무리, 2024년 6월 서명 완료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2022년 7월 협상 마무리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4809900010,4811900010,4816900010,4823908520	감열지(특정 경량지)(Thermal paper (certain light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7.5.4 ~ 2028.7.1	○ 판정결과 : EURO103.16 / t * 2023.6.30 : 일몰재심 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2	4809900020,4811590020,4811900020	감열지(특정 중량지)(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0.10.21 ~ 2025.10.21	○ 판정결과 : 15.8%
3	3906909017	고흡수성 수지 (Superabsorbent polym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2.4.7 ~ 2027.4.7	○ 판정결과 : 13.4 ~ 18.8%
4	28046900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수출(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대만)	○ 부과기간 : 2022.8.13 ~ 2027.8.13	○ 판정결과 : 16.3% ~ 16.8% * 중국산 한국, 대만 우회수출품도 규제 * 2022.8.12 : 일몰재심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5	7225110011,7225110015,7225110019,7226110012,7226110014,7226110016,7226110092,7226110094,7226110096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규제중)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 부과기간 : 2022.1.18 ~ 2027.1.18	○ 판정결과 · 일본 : 35.9 ~ 39.0% · 중국 : 21.5 ~ 36.6% · 한국 : 22.5% · 러시아 : 21.6% · 미국 : 22% * 2022.1.14 : 일몰재심후 조치 연장 결정

6	7312108113,7312108119,7312108313,7312108319,7312108513,7312108519,7312108913,7312108919,7312109813,7312109819	철강 와이어 로프(Steel wire ropes)	우회수출(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모로코)	○ 부과기간 : 2018.4.20 ~ 2029.6.7	○ 판정결과 · 중국 : 60.4% · 모로코(우회) : 60.4% · 한국(우회) : 60.4% * 일몰 재심 후 규제연장 (2024.6.8~)
---	---	-----------------------------	----------------	---------------	-------------------------------	---

7	72,73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p>○ 판정결과 : 국별/글로벌 TRQ방식, 초과수량 25% 관세 부과, 연 3% 쿼터 증량 방식 *</p> <p>2021.6.25 : 조치 연장 결정</p> <p>* 2024.6.25 : 조치 2년 연장 확정(관보 게재)(무관세 확대 비율 4%→1%로 축소, 일부 국가의 품목 조정 등) *</p> <p>세이프가드 조치 대상품목은 26종(1)열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2)냉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3)전기강판(Electrical Sheets)(other than GOES)(4)도금강판(Metallic Coated Sheets)(5)착색아연도강판(Organic Coated Sheets)(6)석도강판(Tin Mill Products)(7)후판(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8)STS 열연(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9)STS 냉연(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p>	<p>○ 부과기간 : 2019.2.2 ~ 2026.6.30</p>
---	-------	----------------------	------------	-----	--	--------------------------------------

						<p>Sheets and Strips)(10)STS 후판(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11)봉·형강(Non Alloy and Other Alloy C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12)철근(Rebars)(13)S TS 봉·형강(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14)STS 선재(Stainless Wire Rod)(15)선재(Non 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16)형강(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17)강시판(18)레일·궤도(Railway Material)(19)가스관(Gas pipes)(20)중공각관(Hollow sections)(21)STS 무계목(See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22)기타 무계목(Other Seemless Tubes)(23)대형 용접관(Large welded tubes)(24)기타 용접관(Other Welded Pipes)(25)냉연강재(26)비합금 강선</p>
--	--	--	--	--	--	---

						합금 강선
8	7307931191,7307931193,7307931194,7307931195,7307931199,7307931991,7307931993,7307931994,7307931995,7307931999,7307998092,7307998093,7307998094,7307998095,7307998098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certain))	반덤핑(규제중)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 부과기간 : 2019.4.9 ~ 2024.4.11	○ 판정결과 · 한국 : 32.4 ~ 44% · 러시아 : 23.8% · 말레이시아 : 49.9 ~ 75% * 일몰재심 중 (2024.4.9~)
9	2910900005,3824999296,3824999310,3907300005,3907300020,3907300080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반덤핑(조사중)	중국, 한국, 대만, 태국	○ 조사개시일 : 2024.7.1	
10	280469,720211,720219,720221,720229,720230,72029930,72029980,28500060	망간 및 실리콘 합금 원소(Manganese and silicon-based alloying elements)	세이프가드(조사중)	전세계	○ 조사개시일 : 2024.12.19	
11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ABS) 수지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s)	반덤핑(조사중)	한국, 대만	○ 조사개시일 : 2024.12.19	

수입금지품목

EU는 제품 안전, 위생, 유기농 제품, 의약품, 환경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약물 전구체(마약류), 일부 멸종 위기 동식물(예: 물개 제품), 불법으로 수확된 수산물 및 목재, 문화재 등이 있다. 이 외, EU는 흉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일부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 중으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 광물 (2021.1.1 ~ 적용 중)

EU는 유혈 분쟁 근절을 위해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가 채굴 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한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 2021년부터 4대 광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2021.7.3 ~ 적용 중)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지침(EU)2019/904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 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 막대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발효, 2년간의 회원국별 국내법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산림전용 관련 제품 (2023.6.29일 발효, 이행 시기 연장 논의 중)

산림전용 관련 제품의 역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의 전용·황폐화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 시장의 출시 및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방지법(EUDR, 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이 2023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 규제에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콩, 목재 등의 원자재와 그의 파생상품을 역내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를 시행하고,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원안은 대기업에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에는 2025년 6월 30일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0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역내·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용일을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이행 연기 제안은 EU 이사회 승인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유럽의회가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EU 입법기관 간 재논의될 예정이다. 2024년 연내 협의가 완료되고 연기 제안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적용 시기가 1년 연장되어 중·대기업에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러제재 관련 러시아산 제품

EU는 러·우 사태 이후 대러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2024년 6월 25일부로 제14차 대러제재가 시행 중으로, 러시아산 석유, 석탄, 액화 프로판 및 일부 구리, 선철, 다이아몬드 등의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14차 대러제재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겨냥한 조치가 포함되어, 러시아산 LNG의 수입 제한을 포함하여 러시아산 LNG 재수출을 위한 EU 항구 이용 금지, 러시아 내 LNG 프로젝트에 EU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회 방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 강제노동 결부 제품 (입법 진행 중)

EU는 역내 수입 및 유통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 중이다. 원산지 및 기업 규모 불문,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결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입과 유통이 금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22일 유럽의회가 법안 확인 작업을 거쳐 승인을 완료, 향후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규정 적용까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 및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있다.

인증제도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CE-RoHS 인증, E-mark/e-mark, CE-MDR 인증, IVDR 인증, 비료 관리 신 법규 (EU 2019/1009)에 따른 CE 등이 있다.

◦ CE 마크 (시행 중)

(개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1993년 7월 22일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필수인증으로 도입된 CE마크는 해당 제품이 안전과 건강,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 CE 마크는 완구류, 전자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

산품에 적용된다. CE마크 인증이 필요한 세부 품목 리스트는 다음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인증 절차) CE 인증 절차는 제품별로 해당하는 세부 지침에 따라나 통상적으로 CE인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즉 해당 제품이 어떤 CE 인증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제품군에 맞는 CE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군에 따른 필수 안전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제품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인증 지침에서 요구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조업체는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기술서는 제품이 표준 혹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술 문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위치한 EU 회원국의 공용어 혹은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쳐 제품의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에 서명할 수 있고, 이후 CE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하며,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CE 마크는 제품 내 식별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나,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재나 사용 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 획득 소요 기간 또한 제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 소요기간은 대략 약 4~8주가 소요된다.

(유의 사항) 기계류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EU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리인, 물류업체를 대리인으로 선정, 상품 규정 준수 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대리인은 역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서 또는 기술문서를 제공하고, 제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CE-RoHS 인증 (시행 중)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개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에 의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RoHS 지침 내, 요건을 충족해야 CE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동 인증은 단일 물질을 기준으로 총 10가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최대 허용 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납(Pb), 수은(Hg), 육가 크로뮴(Cr6+), 폴리브롬화 비페닐 내염제 PBB(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비스 프탈레이트 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BBP (Benzyl butyl phthalate),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Dibutyl phthalate),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IBP (Diisobutyl phthalate) 등 9개 유해물질은 최대 허용 농도가 0.1%인이며, 카드뮴(Cd)의 최대 허용 농도는 0.01%이다.

(적용 대상)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케이블 및 하위 부품, 소모품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군용 장비, 우주 발송 장비 등은 제외된다.

(유의 사항) RoHS 부속서 3에 따라 일부 제품에 제한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예외 조항 만료일을 명시하고 있다. RoHS의 예외 조항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제·개정이 진행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 조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ha.europa.eu/exemptions-art-4-restrictions-rohs>

○ E-mark 및 e-mark (시행 중)

(개요) E-mark는 유럽연합 및 일부 비EU 국가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 환경 신화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표준으로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자유로운 유럽 내 시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e-mark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표준으로 유럽 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부품 및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기준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E-Mark 및 e-mark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자동차(승용차, 상용차, 트레일러)를 포함해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품

(인증 절차) E-mark/e-mark 인증을 위해서는 신청서, 일반사항(제품명, 제조자명, 주소, 명판, 제품 사양 및 기능 등), 제품 도면, 제품 메뉴, 제품 샘플, 제조공장의 ISO9001 인증서 등을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다. 신청된 내용은 생산 절차와 제품 검사, 공장 심사 등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시험 기관은 EU 각국 교통부가 인정한 곳이어야 하며, TÜV Sud, ICR, IEC 등이 있다. 시험기관 심사 후 EU 회원국 교통부 허가를 받아 E-mark/e-mark 및 인증번호를 부여받으며, 마크 옆에는 EU 회원국별 고유 코드 번호가 명시된다. 통상 해당 인증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유의사항) E-mark/e-mark 인증은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으나, 제품 사양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 기관에 변동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후 검사가 진행되나, ISO9001을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 심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 CE-MDR 인증 (시행 중)

(개요) 유럽 의료기기 규제(MDR)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인증이다. 2021년 5월 26일 이후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은 이전의 MDD(Directive 93/42/EEC for Medical device)를 대체하며,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엄격한 기술 문서 작성 및 품질 관리 시스템(QMS) 구축을 요구한다.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안전성과 성능 요건, 임상 평가 및 위험 관리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승인 기관에서 검토 후 CE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인증은 유럽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데 필수적이며, 강력한 사후 감시 체계를 요구해 지속적인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적용 대상) 모든 의료기기

(적용 시기) MDR 규정 제1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MDD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의료기기 품목별로 상이한 MDR 전환 유예기간을 가진다. 단 설계 및 의도된 사용 목적 상 중대한 변경이 없어야 하고, 2024년 5월 26일 이전에 인증 기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 9월 26일 이전에 인증 기관과 계약이 되어야 한다.

- (맞춤형 3등급 이식형 의료기기) 2026년 5월 27일 이전 인증 획득
- (고위험 3등급 의료기기, IIb 등급 이식형 의료기기) 2028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저위험 1등급, IIa등급, IIb등급 의료기기) 2029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인증절차) 제품 등급별 소요 기간이 상이하나,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별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제품의 일반적 설명, 디자인 및 제조 정보, 위험관리,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증거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다음 단계로 제품 분류 및 적용 규정 확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무균, 측정, 침습성으로 분류, 각 분류별로 적용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문서 및 공장심사(임상자료 포함)를 거쳐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유의 사항) 인증서 발급 후 매년 정기적인 사후 심사가 필요하며, 인증 규정, 절차, 비용 등 정확한 인증 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기관에 문의 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한 뒤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IVDR 인증 (전환 기간)

(개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지침(IVD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을 체외진단의료기기규정(IVD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Regulation)으로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IVDR은 기존 IVDD를 대체하여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CE 마크가 있는 체외진단기기의 제조업체는 전환 기간 내에 등급 분류에 따라 IVDR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적용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유형을 위험 등급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전환 기간 내 EU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적용 시기) 2017년 IVDR 발효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을 위해 2024년 2월 21일 EU 이사회는 IVD, 특히 D 등록 의료기기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IVDR 일정 개정을 승인했다. 연장된 전환 기간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아래 등급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기관을 접촉하고, IVDR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단, 아래의 연장된 전환 기간은 2025년 5월 26일 이전까지 IVDR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QMS)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A등급(멸균), B등급) 2027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30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C등급) 2026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29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 (D등급, CE 인증제품) 2025년 5월 26일 이전 인증기관 접촉, 2028년 1월 1일 이전 인증 획득

(인증 절차) 심사, 평가, 시험, 검사 및 규제 문서 발행

(유의 사항) 제품 분류, UDI(고유식별코드) 전략 설정을 위한 작업 그룹 구성, 갭 분석, 품질관리시스템(QMS)의 상향 조정(특히 시판 후 감시 및 위험관리에 중점), 기술문서 구비(특히 성과 평가 및 임상 증거에 초점)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비료제품 CE 인증

EU 위원회는 EU 규정에 적합한 비료를 EC 비료(EU fertilising products)로 규정하는 유럽 위원회 규정 (EC) 2003/2003을 폐지하고 비료 제품에 CE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 '비료 제품의 EU 시장 입수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칙 (EU) 2019/1009'에 따라 비료 제품(석회 비료, 토양 개량용 비료, 식물 성장 촉진제, 식물 성장 억제제, 생물 자극제, 비료 혼합물)은 CE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3월 EU 순환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로 제출됐으며,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기질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낮추고 유기질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비료를 대량생산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데 있다. 2022년 7월 16일 부터 현행 규정 (EC) No 2003/2003은 완전 폐지되고 CE 인증에 관한 규정 (EU) 2019/1009로 대체되어, 현재 EU 국가에서 비료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CE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 및 원료 분류(CMC)에 따라 인증 유형이 결정된다.

(PFC 분류)

-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 PFC 4: 재배 기질
-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 PFC 7: 혼합 비료

(CMC 분류)

- CMC 1: 원료 및 혼합물
-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 CMC 3: 퇴비
- CMC 4: 신선 식물의 부속 재료
-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속 재료
-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 CMC 7: 미생물
- CMC 8: 영양 폴리머
-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인증 모델)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다.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NB에서 테스트받아야 하며, 시험 보고서와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한다.

TBT

EU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산업계에 걸쳐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제정) 중으로 산업별로 해당하는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 9월 이후로는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을 사용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 REACH (시행 중)

(개요) EU는 화학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역내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EC 1907/2006)를 2007년에 도입했다. 종래 2023년 말로 예정되었던 EU 화학물질관리규정 개정안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EU 집행위 업무계획에서도 REACH 개정안 발표가 제외되며 2024년 6월까지 추진하려던 개정안도 포기 되었다.

(적용 대상)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취급하는 모든 단일 물질,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 내 단일 물질, 고분자 단량체(고분자에 결합한 단량체 또는 개시 물질 중 2%), 완제품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 등록: 연간 1톤 이상의 제조 및 수입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와 수입자 또는 역내 대리인은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을 기록한 등록 서류(Technical dossier)를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10톤 이상을 취급할 경우, 추가로 안정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ECHA의 검토 후, 승인되면

등록비를 지불한 뒤, 신고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 평가, 허가 및 제한: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우선 평가 대상으로 ECHA의 평가에 따라, 추가 조치 없이 시장 유통, 추가 정보 요청 및 재평가,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이라도 제조 수입자 사용처 등에 따라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허가 물질로 분류될 경우, 주기적으로 ECHA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한 물질은 물질별로 출시 및 유통이 금지되는 제한 조건이 부여된다.

(유의 사항) 등록 서류가 미비한 경우, ECHA는 등록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한 물질이 추가되는 추세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미세플라스틱이 제한 목록에 추가되어 2023년 10월 17일자로 적용되어, 용도와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 포름알데히드 및 그의 방출제에 대한 배출제한이 2023년 8월 5일자로 발효되었다. 제조사는 발효 3년 후, 차량 제조사는 발효 후 4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nnex X V II (제한) 물질 목록 개정 관련 고시(EU 2024/2462)가 고시일 2024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10월 10일자로, Entry 79 신규(PFHxA, ist salts and related substances)가 추가되었다.

○ 에너지 라벨링 (시행 중)

(개요) 에너지 사용 제품에 에너지 효율에 등급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라벨로, 기존의 에너지 라벨은 A+++~D등급(10등급)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으나,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부족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 A~G등급(7등급)으로 변경한 개정안을 2021년 3월부터 일부 제품군에 우선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 냉장·냉동기기, 와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및 건조기, 조명기기,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

(유의 사항) 라벨에 QR코드를 추가하여 EPREL(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에어컨, 오븐, 온수기 등의 제품에 확대 적용될 전망으로, 가전별로 에너지라벨 요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 중,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역내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 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수입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24년 1월부터 전환 기간(2023년 10월~2025년)에 따른 첫 번째 CBAM 보고 의무가 시작되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총 6개 품목의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탄소 배출량

(유의 사항) 전환기간 동안인 2025년까지는 내재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나, 2026년 본제도 시행 시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내재 배출량 관리와 본 제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전환 기간 중, 보고를 하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위는 CBAM 본격 시행기인 2026년 이전에 법안을 검토하고 세부 법률을 마련하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관련 산업계는 추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2024년 2월 18일 시행)

(개요) EU는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을 대체하여,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gulation)을 제정하여 2024년 2월 18일 시행되었다. 규정 세부 내용은 2024~2028년 내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할 예정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휴대형 배터리, 전기가전기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SLI 배터리(자동차, 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 LMT 배터리(전기가전기, 전기스쿠터 등 경량운송수단용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주요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재활용 원료 사용, 공급망 실사,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이 규정 제93조에 따라 2025년 8월 18일까지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벌 규정과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각 생산 공장별배터리 제품별로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며, 탄소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내 출시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2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생산 공장별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

자국 선언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선언서는 배터리 모델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생산 공장의 지리적 위치, 제품의 탄소발자국 총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형 폐배터리를 2027년 말까지 63% 이상, 2030년 말까지 73%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속서 XII C부에 따르면 폐배터리에서의 리튬 회수 목표는 2027년 말까지 50% 이상, 2031년 말까지 80%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 재활용 원료 사용: 새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비율의 재활용 원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원재료 정보를 기록한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여권은 부속서 XIII에 따라 배터리의 원료, 탄소발자국 선언서에 명시된 탄소발자국 정보, 재생 원료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개정안 (2025년 발효 예정)

(개요) 역내 포장 폐기물 감축하기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개정안이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최초 승인되어 2024년 가을 EU 선거 후 최종 버전이 승인된 후, 2025년 발효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발효 후 18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기존의 지침(Directives) 수준이었던 포장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수준으로 그 효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의 최소 함량과 폐기물의 무게별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의무 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2030년까지는 경량 목재, 고무 등 일부 소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일회용 포장재 등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포장재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영향을 받는 기업은 식음료, 전자제품, 가전제품, 바닥재, 타이어 등 일상 소비재 판매자부터 산업용 제품 판매자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 산업, 상업, 가정 및 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재활용 포장재 관련 규정)

-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규정: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 비율이 70% 미만일 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 관할 당국의 통지에 따라,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는 일정 기간 동안 제외(예컨대 특정 의약품 포장, 특정 식품의 접촉 민감 포장 등)된다.

- 포장재 내 재활용 비율: EU 내 시장에 출시(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 포함) 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비율만큼 포함해야 한다(제조 공장별 연도별 평균으로 계산). 최소 비율은 포장 유형에 따라 다르며, 2040년부터는 최소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포장재의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관련 대기, 수질 및 토지로의 배출 감소 관련 동등한 규정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가능하다.

- 과불화화합물(PFAS)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2026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 포장재의 출시가 금지된다. 단, 집행위는 타 규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본 규정 적용 후 4년 이내에 본 조항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특정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포장재,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및 소비자의 두 개 이상의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병,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는 단체 상품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예컨대 콜레이션 필름 또는 수축 랩 등), 특정 무게 미만의 사전 포장된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단, 제한적인 예외 있음), 숙박업소에서 사용되는 샴푸, 로션 등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일회용 포장재, 초경량 비닐 봉지의 사용이 금지된다(단, 예외 있음).

- 포장 최소화 의무: 제조자나 수입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상품 포장의 무게나 부피를 상품의 기능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경감하여야 한다. 그룹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 관련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된다(버블 랩 재료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

-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테이크 아웃 판매 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 및 불리한 조건 없이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 음료 또는 즉석조리식품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 보증금 반환 제도: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90% 이상 분리수거 의무 이행을 위한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구축 의무가 부과된다(2029. 1. 1까지).

-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 EU 공통으로 통일된 라벨 부착 의무; QR 코드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재사용 관련 지침 정보 제공 의무; 녹색 주장 문구 제한(최소 요건 초과 경우 표시 가능); 포장재 제조업체 적합성 선언 의무' EU 내 포장재 출시 전 국가 등록 의무

- 확대된 생산자 책임: 생산자는 포장폐기물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 분담 형식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에코디자인 규정 (2024.7.18. 발효)

(개요) EU는 2022년 3월,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한층 발전시킨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새롭게 제안했다.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가전제품 등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적용되었고 주로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규정은 그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환경 보호와 순환 경제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이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에코디자인 규정은 부품 및 중간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부품과 중간재,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식품과 사료, 인체용 의약품, 차량 및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제외된다.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디지털 여권,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계획된 노후화 행위 금지 등

-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재활용성, 수리 가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여하여,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 관련 조항을 설정하였다.

- 디지털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DPP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중요한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수단을 말한다. DPP에는 제품의 식별 정보, 에코 디자인 요건 정보(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 소재, 공급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나 워터마크 등의 데이터 이동 매체(data carrier)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품은 DPP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여권의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여야 한다. DPP의 세부 사항은 향후 제품 군별로 제정될 위임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위임법에서는 DPP가 적용될 제품군,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DPP의 유효 기간 등이 상세히 규정될 예정이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군에 대한 첫 번째 DPP는 2027년 중반 무렵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기업들은 미판매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된 제품의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처리 방식, 그리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 관련 정보를 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의류, 모자, 의류 부자재 및 신발(부속서 7A)의 폐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판매 제품 보고 및 폐기 금지 의무는 발효 24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중견기업(medium-sized)은 발효 6년 후부터 적용되고, 중소기업(micro and small)은 적용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경에 우선순위 품목군 설정 등을 포함한 첫 번째 실무 계획(Working Plan)을 발표할 예정으로, 섬유와 철강이 첫 번째 품목별 이행 규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이행 규정은 2027년 중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획된 노후화 행위 금지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짧게 만들거나 조기 오작동을 유발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의 사항) 디지털 제품 여권의 경우, 에코 디자인 규정 외에도 배터리, 장난감, 세제, 전자제품 규정 및 핵심원자재법 등의 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산업군별로 대비가 필요하다.

○ 공급망 실사 지침 (2024년 7월 25일 발효, 2027년 7월 시행 예정)

(개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활동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 시행 후, 관련 내용 공시의무를 지우는 지침이다. 2024년 7월 25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인 2027년 7월부터는 전세계 순매출이 15억유로(약 2조2500억원)를 초과하고 직원 수가 5천명을 초과하는 EU기업과,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 EU기업에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29년 7월부터는 전세계 순매출 4.5억유로(6750억원) 및 직원 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EU기업과, EU 내 순매출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 EU기업으로 확대된다. 유럽 기업 5400여개가 실사 의무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하나, 매출액과 직원 수가 적용 범위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기업에 실사가 적용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이 단순히 지분만 보유한 경우, 지배 구조상 최종 모기업 하위에 놓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기업이 실사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 실사 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업스트림(제품·서비스의 생산추출설계소싱원자재 공급 등)에서 다운스트림(유통, 운송, 보관)까지 전체 공급망에 국제인권협약, 아동노동, 최저연령 협약, 수은 미나마타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등의 국제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연 1회 공시할 의무가 있다.

(유의 사항) 실사 의무 미준수로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 반보조금 조사 (시행 중)

(개요) EU는 역외국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조사 후, 해당 기업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 불공정 경쟁 방지 및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 중이다.

(조사 절차) EU 관보 게재 → 집행위의 조사 개시 → (잠정조치) → 최종 판정 → 조치

(조사 기간) 통상 6개월 이상으로 설정되며, 최대 조사 기간은 13개월로 한정된다. 필요에 따라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잠정조치 시, 집행위는 4주 전에 잠정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 내용 및 조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혜택(Benefits), 특정성(Specificity)을 모두 충족하는 보조금 수령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규모, 보조금과 피해 사실 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 후,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의 사항) 2023년 9월 우르클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EU는 중국 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가 더해져 부과된다.

◦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중)

(개요)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분야 내 보조금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부로 사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비 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EU 입법부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왜곡은 EU 회원국들이 EU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내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비EU 국가들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FSR은 특히 M&A 거래와 공공 조달 절차에 중점을 두고, EU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비EU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업결합은 역내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지원액 5천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공공 조달은 조달가 2.5억 유로 이상 및 지원액 4백만 유로 이상이다.

(주요 내용) 집행위는 보조금 심사 후,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 보조금 환급, 해당 기업의 역내 활동 제한, 특정 투자금지 또는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며,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 분야에 걸쳐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유의 사항) 총매출액의 10% 벌금 또는 일 평균 총매출액의 5% 이행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사전 신고가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중, 2026년까지 연장)

(개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다. 2019년 2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 중으로, 202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EU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6년 중반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2024년 5월 28일).

(적용 대상)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등 총 26개 품목

(주요 내용)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 한국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 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의 주요 수입국으로 분류되어 국별 쿼터를 할당받고 있으며, 그 외 14개 품목은 선착순으로 글로벌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 CPNP 및 PIF (시행 중)

(개요) EU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에 따라 마련된 온라인 화장품 신고(Notification) 포털사이트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화장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EU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 포털에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 전에는 PIF(Product Information File)라고 불리는 기술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PIF 작성은 역내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에게 의뢰할 수 있다. 국내기업에는 CPNP 등록 또는 인증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전 신고제라고 할 수 있으며, 회원국 차원에서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 EU에 수출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인증 절차) 약 1~2개월 소요

- RP 지정 및 서류 제출: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PIF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RP에 제출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 원료별 안전데이터시트, 제품 시험성적서, 안전성 테스트 및 발부력 테스트 결과, 제조 번호, 원산지, 동물실험 테스트 여부, 라벨 및 포장재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는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EU 기준에 맞는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

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친다. 라벨의 경우,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하며, 라벨에 적힌 효과(진정, 주름개선, 미백 등)와 관련된 모든 문구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CPNP에 등록이 가능하다.

- PIF 작성: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PIF를 작성하며, PIF는 원료, 완제품, 라벨 및 포장재에 대한 정보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로 구성된다.

- CPNP 등록: CPNP에 제품 등록 후,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의 사항)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구비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만약을 대비해 RP 측에 PIF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 개요

EU 회원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 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기존 세관 현대화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신관세법은 세부적 실행 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벨기에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EU 역외로부터 역내 개인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 없이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세관은 개인 택배를 가장한 상업용 판매 제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적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비EU 관세영역에서 벨기에와 같이 EU 관세영역 거주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을 받는 벨기에 거주자는 반드시 EORI 번호(경제운전자 번호)와 VAT(부가가치세) 확인번호가 있어야 한다. 즉, 벨기에 거주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상품의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벨기에 거주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보내는 것은 벨기에 관세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세관 적발 시,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벨기에에 보낼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정상 통관 절차를 진행 해야한다.

만약 정식 판매용이 아니라 거래 전 샘플을 보내고 싶을 경우, 관세면제에 대한 이사회 규칙(EC) No 1186/2009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면제 대상에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통관을 해도 관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EU 관세법 개정안 동향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에 따른 역내 신규 제품 안전 표준 및 의무 부과로 가중된 세관 당국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관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주문일로부터 1일 이내 상품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한 사전 검사 동의기업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각 회원국의 개별 통관 시스템을 대체할 단일 플랫폼(EU Customs Data Hub)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하여,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면 2025년부터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의 관세 제도

EU는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결정, 각 회원국 세관 당국에서 징수한다.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 최혜국 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 협정 특혜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한다.

-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개도국 수입품에 특혜관세를 부과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제도로 GSP 일반, GSP+, EBA로 나뉜다. 기존 GSP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작업이 지연되면서 2027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GSP의 개정 작업 중, EU는 역내 불법 이민 문제를 GSP에 연계하여 역내 체류가 거부된 망명자를 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GSP 특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1. 일반 GSP

비 민감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타 품목은 관세를 감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에 적용 중이다.

2. GSP+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들인 스리랑카, 파키스탄, 볼리비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총 8개국에 적용 중이다.

3. EBA(Everything but Arm)

최빈국에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캄보디아, 부룬디, 네팔, 르완다, 세네갈, 수단, 토고, 잠비아, 예멘 등 47개국에 적용 중이다.

o EU의 품목분류 체계

EU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 System) 체계를 기초로 EU 차원에서 세분류한 복합품목분류(CN)와 CN에 기초하여 관세율과 EU 조치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관세율표(TARIC)로 구성된다.

- EU 복합품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CN은 이전에 별도로 공표되던 관세율표와 무역통계품목표를 통일하여 만든 것으로, HS 품목분류표, CN 소호(CN sub-heading)라 지칭되는 품목분류표의 세목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CN 소호와 관련된 류(Chapter)의 주(notes) 등 보충규정을 포함한다. CN은 8자리의 숫자로 구성,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 나머지 7, 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CN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관보에 게재된다.

- EU 통합관세율표(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세목을 EU 차원으로 분류하기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EU 통합관세율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조치를 비롯해 농산물의 표준 수입 가격 및 단위가격,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관세 과세 기준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송장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액 산정 시,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을 반영한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는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부가가치세는 21%이며,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시행 중)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동 규정을 통해 150유로 이하의 저가 상품은 사업자, 운송사 또는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관·부가세 신고는 간소화 시스템(IOSS, Import One-Stop Shop)에서 할 수 있으나,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하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 EU 수입통제시스템2(Import Control System 2)

EU의 수입통제시스템인 ICS2는 EU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도착 전에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EU로 반입되거나 EU를 경유하는 모든 화물은 반입 전에 화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HS 코드, EROI 번호 등을 입력한 사전 신고서(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EU 중앙 서브(STI, Shared Trader Interface)로 전송해야 한다. 전송된 화물 사전 정보는 분석을 거쳐 위험도에 따라 선적 금지, 검사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 결과는 모든 회원국 세관에 공유된다.

ICS2는 2021년 3월부터 항공 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적용됐으며, 2023년 3월부터 일반 항공화물(General Air Cargo), 2024년 6월 3일부터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ICS2가 도입되는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업체는 2024년 6월 3일부터 전환 기간인 12월 4일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ICS2의 두 번째 구현단계에 해당하며 EU,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항공, 해상, 수로를 통한 상품 운송에 적용된다. ICS2의 마지막 구현단계는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는 도로 및 철도 운송에 적용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

EU는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2022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연장을 거쳐 2024년 5월 13일 집행위는 무관세 조치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가금류·계란·옥수수·귀리·곡물·꿀 등의 품목에 한해 품목별 수입량이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적용되고 있다. 조건부 무관세 조치 연장은 추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EU 관세율은 EU 복합품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에 따라 적용한다.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 H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에 원하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품목 코드로 조회할 것을 권고한다.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또한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EU 관세법령위원회 결정(conclusions), 품목분류규정(regulations), EU 사법재판소의 판결문(rulings), EU 복합품목분류표(CN), 통합관세율표(TARIC) 정보 등의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총국에서 운영하는 'CLAS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개요

벨기에는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산업 도시들과 인접하고 있어 유럽의 관문으로 불린다. 북유럽과 지중해 사이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잘 발달한 물류 인프라 및 풍부한 숙련 노동력으로 유럽 내에서 물류창고나 유통 센터를 설립하기에 최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2) 주요 무역항

주요 항구로는 앤트워프(Antwerp), 제브뤼헤(Zeebrugge), 오스텐드(Ostend) 등이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벨기에 및 유럽항 화물 대부분이 앤트워프항을 통해 들어온다. 2022년 4월 22일, 앤트워프 항구와 제브뤼헤 항구가 합병되어 앤트워프-브뤼헤항(Port of Antwerp-Bruges)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합병 후 앤트워프-제브뤼헤 항구는 2022년 유럽 1위 수출항으로 등극했다. 내륙항인 앤트워프항은 화학제품의 취급 및 저장에 특화되어 있으며, 북해 해안가에 위치한 제브뤼헤항과 오스텐드항은 각각 제브뤼헤항은 Ro-ro(Roll-on/roll-off) 자동차, 컨테이너, 액화 벌크 화물을, 그리고 오스텐드항은 건화물(dry bulk)을 주로 취급한다.

3) 주요 공항

벨기에의 주요 공항으로는 브뤼셀과 인접한 자벤템 시에 있는 브뤼셀 공항(또는 자벤템 공항, BRU)과 브뤼셀 남쪽 근교 도시 샤를루아에 위치한 브뤼셀 샤를루아 공항(CRL)이 있다. 그 외 프랑스어권 왈로니아 지역의 리에주 공항(LGG), 네덜란드어권 플란더스 지역의 오스텐드 공항(OST)과 앤트워프 공항(ANR)이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벨기에는 경제 특구나 자유 무역 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를 활용하고 있다. 위치에 상관없이 세관 당국에 등록된 보세 창고에 비EU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보세 창고를 운영하는 개인 및 회사는 EU 내 설립되어야 하며, 관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벨기에 세관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벨기에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 제품은 벨기에 내에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EU 국가로도 추가적 통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통관 됐다'라는 표현은 수입 관세와 부가세 납부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관세는 수입 통관을 진행한 EU 국에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는 각국의 부가세 규율에 따라 수화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 추후에 환급 받으면 된다.

1) 약식 통관

약식 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 통관

정식 통관은 벨기에에서 수출입 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통관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의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3) 우편 통관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 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 이는 관세 등으로 조세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국제 우편물은 벨기에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우편 통관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가 있으며, 해당 서류에 보내는 물건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 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화물을 보세 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면 매번 발생하는 수입 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AT를 물류 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 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나,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5) 보세 통관

수입 통관 완료 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보세 운송 서류(T1, 또는 Transit document)를 발행해야 한다. 이 서류는 벨기에가 아닌 EU 국가로 화물 운송 시 수화인이 해당 국가에서 직접 수입 통관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이 밖에도 화물이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후 수입 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 창고로 운반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창고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 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 등이며, 벨기에 외 EU 국가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통관 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 서류의 유효 기간은 보통 7일 정도이며, 해당 국가 도착 이후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보세 운송 서류를 수입 통관 서류로 대체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 서류로 운송한 화물이 유효 기간 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다른 보세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은 해당 국가 도착 시 지정된 통관 사무소에서 통관을 마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된다.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수송 트럭은 중간 경유(Multi-stop)를 해야 하는데, 이때 약 80유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 관세 및 부가세의 경우,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 보관 서류(IMA), 또는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수입 통관 없이 화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유효 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효 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부가세의 납부의무는 수입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 운송(Multi-stop)으로 물품을 해당 통관 사무소까지 운송한 후에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 운송

을 위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에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 왔다.

중앙집중식 통관 방식을 적용하면 수입 물품이 수입 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신고자가 귀속된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통관 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세관 시설 인프라 격차가 커서 EU 차원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 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 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벨기에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상업송장 :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 당 물품 가치가 1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위험품목의 경우 MSDS,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선스,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 또는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를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에서는 8단위의 EU 상품 분류 제도 CN Code(Combined Nomenclature)를 사용하고 있다. CN Code 8단위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수입 시 필요에 따라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세번 부호가 적용될 수 있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통관비용 : 통관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0% 상승했다.

- 보세 보관 서류(IMA): 55 유로

- 보세 운송 서류(T1): 55 유로

-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85 유로

3) 수입 물품 전자 신고 관리 시스템(ICS2) 시행 및 전환(2021.3.15일부터 단계적 시행)

EU 역내에서는 2021년 3월 15일부터 수입 물품 신고 관리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 이하 ICS2)을 시행하고 있다. ICS2는 역내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 및 위기관리 강화, 국경 간 세관 통관 간소화, 경제 활동인(Economic operator)과 역내 세관 당국 간 원활한 정보 교환 원활화 등의 목적으로 고안한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수출자(또는 포워더)는 화물 선적 전 물품에 대한 데이터(PLACI; Pre-loading Advances Cargo Information)를 EU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데이터는 발송인 및 수신인 정보(성명, 주소), 제품 설명, 무게, 운송장 번호 등이다.

ICS2는 제품의 운송 방법에 따라 총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2021.3.15)는 항공 우편물 및 항공 익스프레스(Express), 2단계(2023.3.1)는 일반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3단계에서는 항공을 포함한 해상, 육상(철도, 트럭) 등 모든 운송 수단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24.6.3. 시행 예정).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_en

또한, ICS2 시행에 따라 개별 선적마다 HS CODE를 9자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포워드 및 항공사 측에서 B/L 분할 발행 및 개별 포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관련 링크: <https://cargo.koreanair.com/ko/cargo-news/eu-ics2-sihaeng-annae-powodeo>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세종해운 벨기에지사(CXL-Europe)

주소	Maritime House, BOX 26, Noorderlaan 111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541-6400
이메일	sejung_hp@sejunggroup.com
홈페이지	http://www.sejunggroup.com
비고	한국 물류기업(물류 및 통관서비스 제공)

○ DB Schenker NV

주소	Noorderlaan 147,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543 62 11
이메일	sales.be@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be-nl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Container Clearing International N.V.

주소	Bredastraat 129-133 2060 Antwerp
전화번호	+32-3-202 62 30
이메일	antwerp@cci-logistics.be

홈페이지	http://www.royalburgergroup.com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Coli Shipping & Transport N.V.

주소	Keizerstraat 20-22 2000 Antwerpen
전화번호	+32-3-213 07 95
이메일	antwerp@coli-shipping.com
홈페이지	http://www.coli-shipping.com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Levaco NV

주소	Stanvoortbeeklaan 25, B-2100 Antwerpen
전화번호	+32-3-202 48 48
이메일	christopher@levaco.be
홈페이지	http://www.levaco.be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CEVA Freight Belgium N.V.

주소	Atlantic House, Noorderlaan 147 2030 Antwerp
전화번호	+32-3-213 62 72
이메일	sam.jaspers@ceva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cevalogistics.com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Geodis Freight Forwarding

주소	Industrielaan 46 2900 Schoten
전화번호	+32-3-540 67 84
이메일	info.ff.be@geodis.com
홈페이지	http://www.geodis.com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JAS Forwarding

주소	Noorderlaan 139, 2030 Antwerpen
전화번호	+32-3-293 26 50
이메일	info@jas.com
홈페이지	https://www.jas.com/countries/belgium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 DSV Air & Sea NV

주소	Bedrijvenzone Machelen-Cargo 829A, 1831 Machelen
전화번호	+32 2 610 41 00
이메일	info.air@be.dsv.com
홈페이지	https://www.dsv.com/en-be/
비고	통관 서비스 제공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벨기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관련 감독은 벨기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 FSMA(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 내 투자 관련 법은 왕령 1995.12.20(Arrêté royal du 20 décembre 1995 relatif aux entreprises d'investissement étrangères) 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외의 주요 투자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다.

- 투자 서비스 및 자문 활동, 포트폴리오관리, 지위 관련 법 (à l'accès à l'activité de prestation de services d'investissement et au statut et au contrôle des sociétés de gestion de portefeuille et de conseil en investissement)
-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억제 관련 법(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utilisation du système financier aux fins du blanchiment de capitaux et du financement du terrorisme)
- 금융 분야 및 금융 서비스 감독 관련 법(relative à la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et aux services)
- 기업 및 단체 코드(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FDI 스크리닝 제도(Mécanisme de filtrage d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등

벨기에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국가 체제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분권화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전됐다. 따라서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벨기에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북부의 플란더스 지방, 중부의 브뤼셀 지방,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 등 3개의 지방정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해 담당 지방정부 당국과 협상 후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EU 시민이 아닌 역외국 국민이 벨기에 내에서 회사(지사 및 연락사무소 포함)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카드(Professional card)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 카드 신청은 벨기에 도착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중인 국가의 벨기에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벨기에에 이미 거주 중이면 벨기에 인증기업 창구(Guichet d'entreprise agréé)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벨기에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출분야에 대한 자격요건(학위 등)을 충족해야 하고 진출계획이 벨기에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 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신청서 2부
- 범죄 경력 조회서 (신원 조회 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진 2부
- 창업 목적 및 사업계획서 1부 (최대 20페이지)
- 그 외 사업 계획 검토에 유용한 기타 문서 첨부 가능

사업자 카드 발급 관할은 2015년부터 3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발급 신청은 해당 대사관 영사과 또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를 통해 가능하다(예: A 기업이 브뤼셀 지방에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 대사관 또는 기업창구는 연방정부가 아닌 브뤼셀 지방 당국으로 접촉하는 형태). 기업창구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당국(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에 신청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신청을 받은 각 지방당국은 기업의 진출 세부계획, 신청자의 기술 전문성, 금전성, 회사 운영형태 등 벨기에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발급기간은 파악하기 힘들다. 대부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며, 2024년 5월 기준 해외에서의 카드 발급 비용은 약 140 유로이다. 사업자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90 유로이다.

- 관련 링크: <https://economy-employment.brussels/professional-card>
지방별 관련 지방당국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o 브뤼셀 지방 - 기관명: Bruxelles Economie et Emploi
- Tel: +32 (0)2 204 13 99
- 주소: Place Saint-Lazare 2, 1035 Brussels

o 왈로니아 지방 - 기관명: Direction de l'Emploi et des Permis de travail
- Tel: +32 (0)81 33 43 62
- Fax: +32 (0)81 33 43 22
- 담당자명 : Stéphane THIRIFAY
- 주소: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Jambes)

o 플란더스 지방 - 기관명: Departement Werk en Sociale Economie
- Tel: +32 (0)2 553 40 60
- 주소: Boulevard du Roi Albert II 15 box 380, 1210 Brussels, Belgium
- Email: secretariaat_TWC@vlaanderen.be

투자인센티브

1) 고용 보조금

벨기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애인, 노인, 미숙련 노동자 고용 시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 설립 후 1~2번째 고용된 근로자들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이 무기한 면제되며 두 번째 고용 근로자의 경우 처음 5분기 동안에는 1,550유로, 그 뒤 4분기 동안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3~6번째로 고용된 근로자까지 그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는데, 이들 근로자에 대해 처음 9분기에는 1,050유로를, 이후 4분기에는 450유로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지역(낙후 지역), 업종에 따라 다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 보조 또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는 신규 환경 규정에 적응하기 위한 기존 시설 대체 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12% 지원, 기존 환경 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오염 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 지역 정화, 환경 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된다. 현금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신규 사업자의 경우 중고 사무용 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3) 혁신 박스제도(Belgian Patent Box)

벨기에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유치를 위해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7년 2월 2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벨기에 혁신 박스 제도는 기존의 특허수익공제법(La déduction pour revenus de brevets)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존 적용 중인 R&D 지원제도를 포함한다. 혁신박스 제도에 따라 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벨기에 지사는 총 납세 대상 수입 중 혁신(Innovation) 활동에 대한 수익 중 최대 85%까지 수익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과 보충적 보호 인정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이하 SPC)

- R&D 활동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 희귀약 지정(Médicaments orphelins)
- 육종자 권리(droits d'obtention végétale)
- 의약품 관련 데이터독점권(exclusivité des données) 및 시장독점권(exclusivité commerciale)

4) Tax shelter

벨기에 Tax Shelter 제도는 영화 및 시청각 영상 제작산업의 부흥을 위해 2004년 도입된 투자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영상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정부는 Tax Shelter 제도를 통해 벨기에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벨기에 영화, 영상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천 명 이상이 투자했으며, 총 620개의 영화가 이 제도를 통해 제작되었다. 특히 벨기에 기업 이외의 해외 제작사들 역시 현지 중개제작사를 통해 Tax shelter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할리우드 등 대형 상업영화 제작사들도 이 제도를 이용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 대상 작품은 영화, 극장·TV용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단편 영화, 에피소드형식을 취한 시리즈물, 만 0~16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용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 등이 해당된다. 벨기에 기업 및 벨기에에 진출해 VAT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송제작사, Tax Shelter 투자 중개업체, 투자대상이 되는 제작사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투자방식으로는 직접투자 방식을 취하며, 벨기에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중개업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투자자는 투자액의 3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세 받아 실질 과세소득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벨기에 Tax shelter 제도에 관련된 공식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기관명: Tax Shelter.be
- 주소: 175 rue de Geneve, 1140 Evere(Brussels)
- 전화번호:+32 (0)2 770 21 33
- 홈페이지: www.taxshelter.be

제한 및 금지(업종)

벨기에에서 특별히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은 없으나, 벨기에 기업의 의결권 및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Banking and Finance Commission)에 통보해야 한다. 은행, 보험,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유통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분야에는 금융재정서비스 당국(Autorité des services et marchés financiers)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승인은 EU 기업과 역외 기업에 대해 승인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이 EEA에 속하는 기업이거나 WTO 협정에 속하는 국가의 기업일 경우 EU 내 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독성물질, 의약품, 다이아몬드 가공, 연마(Polishing), 가스·전기 공급, 임대(Leasing), 공공운송, 안보, 일부 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역시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등에 대한 사업도 당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스크리닝 규제(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gulation)를 강화함에 따라, 벨기에 연방정부도 이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2023년 7월 1일부 발효되었다. 벨기에 안보, 공공질서 및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규제 대상이 되며, 외국인 투자는 공식 기관인 연방심사위원회(ISC; The Interfederal Screening Commission)에 보고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EU회원국의 국내법과 달리, 벨기에의 FDI 심사제도는 제 3국 투자자(비EU)의 투자를 심사하며, 벨기에에 신규·직접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예:그린필드) 또는, 벨기에 내 기존 경제활동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 받지 않는다.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현지인 고용의무 규정은 없다.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 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 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벨기에에는 국가 차원의 특별경제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정책은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 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Anderlecht, Bruxelles, Forest, Molenbeek-St-Jean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기업 진출방식,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담당 기관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한다.

- 브뤼셀 지방 경제 및 고용부(기업지원부)
 - Bruxelles Economie et Emploi(Direction Aides aux entreprises)
 - 주소: Place Saint-Lazare 2 1035 Brussels
 - 홈페이지: <https://economie-emploi.brussels/soutiens-financiers>

한편, 북부 플란더스 지방과 남부의 왈로니아 지방은 브뤼셀 지방처럼 별도의 경제구역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단지

없음.

주요 지역별 여건

○ 플란더스 지방

연방국가인 벨기에에는 플란더스 지방(북부), 브뤼셀 지방(중부), 왈로니아 지방(남부) 등 3개의 지방으로 구분되며, 지방마다 고유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즉, 각 지방정부는 투자 및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무적, 기술 및 실무적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무료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플란더스 지방은 유럽 내에서 투자 매력력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유럽 주요 항구인 안트워프 항을 비롯해 신차 운송이 활발한 제브리헤 항구, 바이오 연료 운송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겐트 항구 등 훌륭한 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안트워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운,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700여 개의 유럽 물류센터(European Distribution Centers)가 동 지방에 구축되어 있다.

이외,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4차 산업 육성계획 Vision 2050을 발표하고 IoT, 3D 프린팅, AI, 로봇, 나노테크놀로지 분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플란더스 지방은 공업이 일찍이 발달한 까닭에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한 상태라 대지가 부족해 신규 산업단지의 설립이 타지방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플란더스 지방 내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FIT(flanders investment and trade)
 - Tel: 0032 2504 87 11
 - 메일: invest@fitagency.be
 - 주소: Koning Albert II-laan 37, 1030 Brussels
 - 홈페이지: [/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http://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

○ 왈로니아 지방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초기 광산업을 중추로 삼고 지방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19세기 후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타지방 대비 경제적으로 다소 뒤처지게 되었다. 이후,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지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Digital Wallonia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및 전 산업 밸류체인 내 디지털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왈로니아는 플란더스 지방 대비 활용 가능한 부지가 충분하며, 해당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AWEX(L'Agence wallonne à l'Exportation et aux Investissements étrangers)
 - Tel: 0032 81 33 28 50
 - 메일: welcome.invest@awex.be
 - 주소: Avenue des Dessus de lives, 6 B-5101 Namur-Loyers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wallonia.be>

○ **브뤼셀 지방**

브뤼셀 지방의 경우, EU 본부와 NATO 등 유럽의 행정중심도시로 제조업 분야 기업보다는 대부분 로비,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브뤼셀 지방정부는 최근 브뤼셀을 유럽의 디지털 허브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bedigital.brussels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IoT, VR, AI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브뤼셀 지방의 투자 전담기관 접촉처는 아래와 같다.

- Hub.brussels(중전의 Bruxelles Invest &Export 기관명이 변경됨)
 - Tel: +32 24 22 0020
 - 주소: 110, Chaussée de Charleroi/Charleroisesteenweg 1060 Brussels
 - 홈페이지: <https://hub.brussels/fr/bruxelles-invest-export>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 벨기에의 투자 환경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주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서유럽의 주요 경제국에 인접하고, 유럽의 주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있어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방 경제와 국제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벨기에의 투자지로서 장점은 운송과 물류 인프라, 제품 가공 무역, 교육 수준이 높고 다국어룰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 등이다.

벨기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역내 회원국과 미국, 영국 등의 역외 국가이다. 주요 투자 업종으로는 제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이며 금융 및 보험 업종 관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외국인 직접투자 감시제도 시행

EU의 외국인 직접투자 감시제도(EU Framework for scree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시행에 따라 벨기에도 2023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시작하였다. 관련 투자 심사는 해당 법안이 발효된 이후 서명된 투자에 적용될 예정이며, 동 제도에 따라 EU 역외에서 국가안보 및 민감한 전략 분야에 투자할 경우, 해당 법인의 의결권 25% 이상을 포함하는 투자 및 인수는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관련 분야는 에너지, 운송, 물, 건강, 통신, 미디어, 데이터 처리·저장, 항공·우주·방위산업, 선거, 금융, 민감한 시설에 관련 인프라, 공중 보건 안전, 국방·군사장비, 이중용도 품목,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공학,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보안 기술 및 원자재,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저장, 양자 및 핵기술, 나노기술,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뉴스, 방송, 신문 매체 등이 해당된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벨기에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간한 2024년 세계투자보고서(WIR, World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벨기에 FDI 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99.2% 증가하여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EY(Ernest & Young) 2024년 벨기에 매력 보고서(EY Attractiveness Survey : Belgium)에 의하면 유럽 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가 작년 9위에 비해 한 단계 위인 8위로 상승하여, 유럽 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1861	3133	9905	11551	23019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 벨기에의 해외 투자 동향

전통적으로 국제 무역에 강세를 보이는 벨기에는 상당 부분의 경제 활동이 해외 시장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국제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FDI 유입과 유출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투자보고서(EIB Investment Survey)에 의하면 2019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벨기에 기업들의 43%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투자도 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의 기업은 2022년에 매출이 적어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40%는 2020~2021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개선되면서 2022년에 대외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에는 러우 사태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제정세 불안전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6111	5420	30095	20311	12072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한국의 벨기에 투자액은 총 8억 1천만 달러 규모이며 신규 법인 수는 8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개사로 가장 많고, 그 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각각 1개의 신규 법인이 신고되었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2	2	0	2	0
2022	10	5	412	7	81
2023	10	1	0	7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업종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신고기준으로 한국의 벨기에 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전체 22건 중 제조업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금융 및 보험업 4건, 전문, 과학 및 기술,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각 1건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총 8천 1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금융 및 보험업이 7천 2백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이 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0	1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0	1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2	0	2	0
도매 및 소매업	2	0	9	2	9
운수 및 창고업	1	1	0	1	0
정보통신업	1	1	0	1	0
금융 및 보험업	3	1	403	1	7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0	1	0
제조업	8	0	0	6	0
금융 및 보험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한국무역협회(KITA)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KBA(한국기업연합회) Europe 운영, 통상정보 제공
모기업명	한국무역협회(KITA)

○ 한-EU 연구센터(KERC)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한-EU 과학기술협력(R&D) 지원
모기업명	한-EU 연구센터(KERC)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지식서비스업
취급분야	한-EU 산업기술협력(R&D) 지원
모기업명	한국기술진흥원(KIAT)

○ 파맥스 글로벌(Farmax Global)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기타
업종	무역 및 물류
취급분야	수출입 무역, 골프용품, 화물운송
모기업명	파맥스

○ 세종해운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물류
취급분야	창고운영 및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세종해운

○ 포스코 브뤼셀 사무소

진출연도	2019
------	------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철강
취급분야	철강재
모기업명	포스코

○ 아시아나항공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항공
취급분야	항공운송, 화물
모기업명	아시아나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6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자
취급분야	도매 및 소매업/ 對EU 협력 및 대응, 연구
모기업명	삼성전자

○ 두산 산업차량

진출연도	1994
진출형태	판매
업종	건설중장비
취급분야	지게차
모기업명	두산그룹

○ 길리안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초콜릿

모기업명	롯데제과(주)
------	---------

○ 기아 자동차 벨기에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유럽법인

○ 현대자동차 브뤼셀사무소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모비스 유럽 (벨기에)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현대건설기계 유럽법인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 장비
모기업명	현대건설기계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벨기에는 기존 총 17개 형태의 회사가 존재했으나, 2019년 5월부로 국내 기업코드가 개정되면서, 현재 총 5개의 법적 회사 형태가 있다.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프랑스어로 SA / 네어로는 NV) : 주식 회사는 자본 조달이 가장 중요한 특정 규모의 회사를 위한 회사 형태. 창립을 위해 한 명의 설립자로 충분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RL/BV) :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기본 적인 회사 형태. 창립을 위해 한 명의 설립자로 충분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VOF) : 합명회사는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파트너 사이에 체결된 회사로 합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함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SCS/GCV) : 합자회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한 명 이상의 파트너 간에 체결되는 회사 형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함

-협동회사(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SC/CV) : 협동조합은 주주가 협동조합의 이상을 추구하는 회사로 항상 세 명의 창업자가 필요. 주요 목적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주주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될 수 있음

벨기에에 투자 진출한 기업의 대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로 진출한다. 금융 문제에서 현지 법인의 경우 벨기에 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에 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현지 법인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별도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사

지사는 외국인 법인체로서 지사가 속한 본사 소재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사도 벨기에 회계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현지 법인 자회사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는 없다.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벨기에 공식 언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발표되어야 하며, 1부는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 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따라 감사, 공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사의 단점은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산업 동향 등 각종 시장 조사 및 기업들과의 접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 절차는 없고 관련 구비 서류를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 제출하고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벨기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식 기업창구는 총 8개로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Acerta(www.acerta.be, 전화번호 : +32.2333.2720)
- Xerius(www.xerius.be, 전화번호 : +32.7848.4777)
- Eunomia(www.eunomia.be, 전화번호 : +32.9371.4957)
- Securex(www.securex.be, 전화번호 : +32.7805.9010)
- Partena(www.partena-professional.be, 전화번호 : +32.2549.7470)
- Liantis(www.liantis.be, 전화번호 : +32.2212.2230)
- UCM(www.ucm.be, 전화번호 : +32.7815.6200)
- Group S (www.groups.be , 전화번호 : +32.2507.1511)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벨기에에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다수 국제 단체와 기관이 위치해 있어 주요 유럽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벨기에 정부주도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 세계적인 연구개발역량,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 벨기에는 3개의 언어 공동체 및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지방마다 주요 산업부문에 서 지역별노동력, 기술격차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벨기에 정부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투자형태를 지원하는 개방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등록절차 및 행정절차 등이 다소 관료적이며, 3개의 공용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지역 언어를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2015년 연방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 팀(TF)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소득세 수준이 높음에 따라 투자 시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조세, 고용관련사항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의 투자진흥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EU공정시장규정을 적용 받으며 국내외 기업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p> <p>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스크리닝 규제(Foreign Investment Screening Regulation)을 강화함에 따라, 벨기에 연방정부도 이를 국내법에 도입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벨기에 안보, 공공질서 및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규제대상이 되며, 외국인 투자는 공식 기관인 연방심사위원회(ISC; The Interfederal Screening Commission)에 보고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EU회원국의 국내법과 달리, 벨기에의 FDI 심사제도는 제 3국 투자자(비EU)의 투자를 심사하며, 벨기에에 신규·직접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예:그린필드) 또는, 벨기에 내 기존 경제활동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p> <p>3) 분쟁해결 벨기에 내에는 대 벨기에 투자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창구나 중재기관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벨기에 지방법원은 정부에 대한 외국중재판단(foreign arbitral awards)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외 법원의 판결 역시 현지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 가능하다. 벨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체약국으로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ICSID중재조항을 포함한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더불어 벨기에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는 SA 또는 NV로 표기되며(프랑스어 société anonyme/네덜란드어 naamloze vennootschap의 약칭),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은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의무로 두고 진행돼왔으나, 기업설립의 유연성을 위해 기존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방식 이외에도 두가지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주식회사 설립 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영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1) 일반 - 전통적 경영방식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담
- 2) 위임 - 행정관(seul administrateur)을 별도로 임명하고 경영권을 위임
- 3) 이원적 경영(dualiste)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두는 경영방식으로 이사회는 기업 업무집행을 총괄하며, 감사위원회는 기업전략 담당 및 이사회 멤버를 지정하는 권한 보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61,500유로와 공증인을 통한 회사정관, 향후 2년간의 재무계획서가 필요하다.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주식 발행 종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기업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복잡한 제약이 뒤따르는 단점을 지닌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벨기에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이며 SRL(불어)/BV(네어)로 표기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손실 발생 시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안전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벨기에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동 기업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장려키 위해 2019년 5월 기존 기업코드 법을 개정해 설립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설립을 위한 법정 자본금 유치의 삭제로 기존에는 최소 18,55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단 1유로만으로도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설립자는 향후 2년간의 기업 재정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정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 스스로 계획서를 작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이 전문 회계사를 통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계보고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업 경영방식 관련 3가지 대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 의무를 지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 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IPV Law

전화번호	+32-(0)4-85-68-36-38
주소	Rue Gustave Fuss 15, 103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www.ipvlaw.be
이메일	avocat.pango@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담당자: Irida Pango-Vermeersch

◦ Cairn Legal

전화번호	+32-(0)2-787-70-70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7/12 117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www.cairnlegal.be
이메일	bv@cairnlegal.b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담당자: Mr. Vandekerckhove Bernard
----	---------------------------------

○ Laga

전화번호	+32-(0)2-800-70-00
주소	Berkenlaan 8a 1831 Diegem, Belgium
홈페이지	http://www.laga.be
이메일	info@laga.b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김은정 변호사(프리랜서)

전화번호	+32-(0)15-730-777
주소	Mechelsesteenweg 175 2220 Heist op den Berg, Belgium
홈페이지	http://www.hanbit.be
이메일	info@hanbit.be
비고	공인 법률 통번역사(네덜란드어-한국어)를 겸임중인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벨기에에는 외환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으며,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 대부, 기술 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과거 벨기에의 공식 외환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시장(The free market)의 이중 구조는 1990년 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됐으며 IMF 제 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외환 규제

◦ 해외송금

벨기에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 외환관리의 기본 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역내 별다른 외환규제가 없어 자유로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벨기에에서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며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 중인 유럽지역 국가간 송금인 경우 무료이나, 한국 등 역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SEPA 해당국: EU-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산마리노, 영국, 모나코). 일례로 2024년 5월 기준 KBC 은행의 국제 전송 수수료의 경우 (송수신 모두) 기본 요율 0.121%(최소 9.68유로, 최대 145.2유로)이며, 25유로 미만의 전송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비용(30.25유로)이 추가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93 유로

대출-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190.6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2,190.65
비고	○ 최저임금 : 2,190.65 달러(세전 기준) ○ 대출 사무직 평균 임금 : 5,000달러, 석사 이상 사무직 평균 임금 : 5,813 달러(세전 기준)				

<자료원 : 현지언론 참조>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감독하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는 4가지 필수요소가 있는데, 계약, 근로, 보수, 고용주 감독으로 이들 4대 요소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고용계약은 양측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변경은 양측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다(계약 종료에도 동일하게 적용). 고용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의 핵심 요소를 변경할 경우, 계약종료로 간주한다. 만약 계약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계약 내 핵심적 요소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고용계약의 문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지를 위해 문서화된 계약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권리 및 의무는 양측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협약, 근로 규정, 관습 등으로도 규율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에는 업무 내용, 고용계약 기간, 보수 및 보수지급 날짜,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고용계약 종료, 결근, 분쟁절차, 근로 규칙, 보험, 식권(Ticket restaurant), 기타 인센티브 등이 문서로 기술되고 있으며 양측간 서명으로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 기간

벨기에에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CDI(contrat a duree indeterminee 고용계약기간 없음)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CDD(contrat a duree determinee: 고용계약기간 있음) 등 2가지의 계약형태로 분류된다. CDI의 경우 정규직으로 특정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한 계약이다. 벨기에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인 CDD의 경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연장된 계약기간 총합은 최대 2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총 계약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벨기에 사회법 규제기관(Controle des lois sociales)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 계약직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계약서 내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 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피고용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정규직(CDI)에 대한 파기는 중대한 과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계약직(CDD)은 파기할 수 있다. 파기 기한은 총 계약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10개월의 CDD인 경우, 5개월 근무 시점에 해당) 이전에만 가능하며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만약 계약 파기 가능 시점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2) 수습기간(Periode d'essai)

벨기에는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1~12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었으나, 2014년 1월 1일부로 이 수습기간은 폐지됐다. 다만 일용직, 학생 아르바이트 등에는 예외를 두고 3일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습기간 제도 폐지에 따라, 만약 기업에서 노동 계약서 내 수습기간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만들 때에는 무효 처리되며,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38시간이며 최대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최소 3시간이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칭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들을 이동하는 시간 및 점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및 식사시간은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근로자 주당 근무일 수가 5일 반 이상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와 거주지 간의 거리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1일 근무시간을 9~1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노사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총 급여가 유지되도록 시간당 급여를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 최대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간 12일의 보상 휴가를 받게 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 및 보상휴가가 보장되는데, 월~토요일까지는 평소 급여액의 50%가,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소 급여의 100%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숙박 및 의료, 전자상거래 분야 등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벨기에 야간근무는 1971.3.16 노동법 제 35조(art 35 de la loi du 16 mars 1971 sur le travail)에 의거, 20시~6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휴가

벨기에의 법정휴가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연간 20일이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44세까지는 26일, 45~49세까지는 27일, 50~54세까지는 28일, 55~59세까지는 29일, 60~61세까지 30일, 62세는 31일, 63세는 32일, 64~65세까지는 33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첫해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무한 다음 연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휴가, 기타 가사와 관련된 사망, 결혼, 출생 시 특별휴가가 인정된다.

1) 출산휴가

벨기에는 출산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출산 전 휴가(conge prenatal)와 출산 후 휴가(conge postnatal)로 나뉜다. 전체 출산휴가 기간은 총 15주로 출산 전에는 통상 6주, 출산 후에는 9주의 휴가기간이 주어진다. 출산 후의 9주 휴가는 별도의 자율적 선택권이 없으나 출산 전 6주 휴가의 경우, 산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산 전 휴가 사용을 줄이고 출산 기간만큼 출산 후 휴가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출산 전 1주일의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3월 7일인 경우, 산모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출산 전 휴가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나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1월 24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출산휴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는 임신에 대한 고용 보장이 매우 높아 고용주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는 출산 휴가 동안 출산수당을 받게 되며, 출산휴가 후의 복직을 보장받는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는 근로자를 위해 하루에 2번 수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첫 4주 동안은 주당 872.87유로(5주 이후부터 798.37유로 2024년 기준) 받게 된다.

2) 배우자 출산휴가(Conge de paternite)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한 부모의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근로자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육아를 장려 위해 생겨났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로 15일로 늘어났으며 2023년부터는 최대 20일로 늘었다. 휴가는 15일을 한번에 사용하거나, 출산일로부터 4개월 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기기간 중 첫 3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가 지불하며, 이후 17일에 대한 급여는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기존 1일 급여의 82%(최대 147.23유로 상한, 2024년 기준)을 지원 받는다.

3) 입양 휴가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면 부모가 각각 기본 6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입양휴가는 최대 3주 연장할 수 있으며, 2인부모의 경우 3주 기간을 2인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예: 양부모 1명이 2주를 연장하면, 다른 1명은 1주 연장) 입양 휴가의 첫 3일 동안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며, 그 이후 기간에는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원래 급여의 82%(최대 147.23유로 상한, 2024년 기준)를 받는다.

4) 육아휴직(Conge parental)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아픈 자녀가 있는 경우 21세까지 가능). 총 휴직 시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을 월/일/반차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의 지원금이 다르다.

- 4개월을 완전 휴직 : 월 828.45유로 지원
- 8개월동안 1/2근로(오전/오후 근무) : 월 381.87유로 지원
- 20개월 동안 4/5근로(주 4일 근무): 월 129.55유로 지원
- 80개월 동안 9/10일 근로(주1회 반차 또는 매2주 1일 휴가사용: 월 64.78유로 지원 (고용주와 사전 동의 필요)

육아휴직은 부, 모 모두 동일하게 각 1회 사용 가능하나 부, 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아픈 가족을 위한 근로 유연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을 돌봐야 할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서 완전 또는 부분 휴직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 및 말기인 경우에도 1개월~2개월의 일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6) 병가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결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30일까지 급여의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30일까지 100%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7) 특별 휴가(Petit chomage)

출산, 병가 이외에도 경조사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휴가가 주어진다.

- 근로자 당사자 결혼: 2일(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결혼의 경우에는 1일)
- 사망: 배우자, 자녀의 경우 최대 10일, 부모의 경우 3일, 형제, 자매,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등
- 안수식(Ordination): 1일(형제, 자매 등)

해고

벨기에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오, 과실을 범하거나 기업 조정 등 경제적인 사유일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통해 해고사유 및 해고 통지기간을 명시해야한다. 벨기에 해고 통지 기간은 입사일(기준: 2014.1.1) 및 연봉에 따라 나뉘고 있으며, ① 입사일 및 ② 해고 통보일까지의 근속 기간 등 ①+②번 총합으로 계산된다. 2014.1.1을 기준으로 두 가지 계산법으로 나뉜 이유는 이전까지는 벨기에에는 근로자가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에 따라 해고절차 및 통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됐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직/사무직에 대한 차별 논란이 많이 일어났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존 차별규정을 폐지한 후 2014.1.1부터 생산직/사무직과 관계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 벨기에 해고 통지 기간 계산법(①+②번 총합)

① 기준 : 입사일(2014년 1월 1일) 및 (연봉) 32,254유로(Gross)

- 만일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입사했고, 연봉이 32,254유로 이하인 경우: 근속연수 5년당 3개월(즉,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6개월이 됨)

-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입사했으나 연봉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② 2014.1.1부터 해고 통보일까지 근속 기간이 기준(이전까지의 근속기간은 이미 ① 항목에서 계산했으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일수는 0으로 간주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만 계산)

- 0~3개월 미만 : 1주
- 3~4개월 미만 : 3주
- 4~5개월 미만: 4주
- 5~6개월 미만: 5주
- 6~9개월 미만 : 6주
- 9~12개월 미만 : 7주
- 12~15개월 미만 : 8주
- 15~18개월 미만 : 9주
- 18~21개월 미만 : 10주
- 21~24개월 미만 : 11주
- 2~3년 미만 : 12주
- 3~4년 미만 : 13주 등

○ 예시: 근로자의 연봉이 32,254 유로 이하이고, 2010년 7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의 해고 통지기간 총합은 3개월+12주로 계산된다.

- 근속연수 5년 이하이기 때문에 3개월이고, 12주(2~3년에 속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개월이 4~5주로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벨기에 고용부에서는 전체 주, 또는 전체 월 수로 합해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개월 +주당으로 계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벨기에 고용부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벨기에 고용부: <http://www.werk.belgie.be/defaultTab.aspx?id=42152>

○ 대량 해고 : 기업 폐쇄 등으로 인한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의사결정 전에 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알리고, 협의 절차 이후 위 사항을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종의 냉각기로서 30일 동안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해고

시기, 퇴직 급여, 조기연금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플랜들이 미리 마련돼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냉각기 동안 고용주의 통보 및 협의 절차 미이행 시 근로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추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60일까지의 평상 임금 지급, 통보 및 협의 절차의 완성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데, 정보 제공 및 협의 절차 후에 사회적 플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게 된다. 이 협상 동안 노사위원회 내부분위기는 냉각기 동안의 사회적 플랜 협상에 영향을 주며, 이 단계에서 노조와 근로자는 모든 형태의 노동쟁의 행위를 한다.

퇴직금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며, 근속년수 45년을 다 채운 퇴직의 경우 연금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 최저임금 : 2,190.65 달러(세전 기준)
- 대졸 사무직 평균 임금 : 5,000달러, 석사 이상 사무직 평균 임금 : 5,813 달러(세전 기준)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은 1886년 대규모의 파업이 발발한 이후 국가가 강제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계기로 벨기에는 근로자와 실업자 간, 직업인과 연금자 간, 건강한 자와 환자 간, 소득자와 비 소득자 간, 양육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연대적 상부상조 개념을 기초로 점차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왔으며, 그 결과 빈부의 차가 심하지 않고 중산층이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이다.

벨기에 사회보장제도에는 전통적으로 연금제도,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 직업병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험, 연간휴가비가 포함되며, 그 외 극빈자와 고령자 최저소득 보장, 장애인 수당,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기여도는 근로소득 중 고용주 3.8%, 근로자 3.55%로 분담된다.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재원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gross salary) 대비 각기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즉, 근로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 실업수당 등 국가 사회보장으로 커버되는 보험을 각기 지불하지 않고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돼 사회보장관리기관으로 지불되면, 사회보장기관에서 각 해당 기관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지급은 연방정부가, 복지서비스는 각 지방정부가 관리한다.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은 강제성을 띠는데, 고용주는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봉급자 및 고용주 부담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 부담비율은 고용주의 경우, 기본 사회보장 부담률 22.65% + 회사특성(규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더해진 대략 33%가량을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13.07%를 부담하고 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기본적인 산재보험 기여금은 근로소득의 0.3%이다.

국민연금

벨기에 연금은 근무기간 중 납부했던 소득별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이 합쳐져서 마련되며 법적 연금(pensions legales), 추가연금

(pensions complementaires), 개인연금(epargne-pension individuelle)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 연금은 법정 소득보장체제로 고령자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45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4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비율만큼 감액된다. 추가연금은 법적 연금에서 추가비용을 들여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근로자의 75%, 자영업자의 45%가 적용되며, 기업에 따라 추가연금 도입 선택이 가능하다. 이 외 개인이 연금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벨기에 근로 연령층의 약 38%가 가입해있다. 현재 적용되는 연금 수급연령은 65세이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높은 연금 운영비용으로 2025년부터는 66세, 2030년부터는 67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벨기에 법인은 영리사업체로 간주되므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내 발생된 소득뿐 아니라 EU 및 비 EU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벨기에 세율은 2020년부터 기존 33.99%에서 8.99% 감소한 25%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벨기에 법인세율이 EU 평균(21.5%) 보다 높고 주변국인 네덜란드(25.8%), 영국(25%), 스페인(25%), 독일(15.825%), 스위스(8.5%)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는 외자 유치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2019년(29.58%) → 2021년(25%) 등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단, 수익 1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외 기존 부과되던 부가세 2% 역시 2021년 폐지되었다.

법인세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불 되기도 한다. 만약 일부 이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최대 200%가 인상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벨기에는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2024년까지는 세전 15,200유로, 2025년부터는 세전 15,820유로까지 25%가 과세되며 이후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되는 소득액별 과세비율은 아래와 같다.

- 연간소득액(세전 기준)별 과세율 (2024년 소득연도 기준)
 - 15,200 유로 미만 : 25%
 - 15,200~26,830 유로 : 40%
 - 26,830~46,440 유로 : 45%
 - 46,440 유로 초과 : 50%
- 연간소득액(세전 기준)별 과세율 예정 (2025년 소득연도 기준)
 - 15,820 유로 : 25%
 - 15,820 ~ 27,920 유로 : 40%
 - 27,920 ~ 48,320 유로 : 45%
 - 48,320 유로 초과 : 50%

* 특정 유형의 소득(예: 해외 소득, 연금 및 대체 소득 등)이나 특정 지출(예: 보육, 연금 저축 등)이 있을 경우 세금액 감소

한편,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득이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해당된다. 매년 소득 신고 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고자는 동봉된 봉투에 답변 서류를 넣어 송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Tax-on Web을 사용하거나, 거주지역에 위치한 세금 신고 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고객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돼 최종단계까지(소비 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 VAT를 지불함)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의 거래자는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즉 스스로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종 VAT는 소비자가 지불하므로 기업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불을 받는다. 역외산 상품 수입 시에도 수입상은 수입 상품가격에 대해 VAT를 지불해야 하나, 이는 나중에 환불 받는다.

○ 벨기에 부가가치세율

- 표준세율: 21%
- 중간세율: 12%
- 감소세율: 6%
- 일부 예외적인 상품 및 서비스: 0%

벨기에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VAT 지침을 따라, 자체 표준 VAT 세율을 1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벨기에 VAT율은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2%보다 높다. 그러나 VAT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VAT 수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벨기에는 세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수입의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벨기에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많은 품목에 예외적 부가가치세율(6%, 12%)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간지 혹은 주간지, 재활용된 상품에는 아예 VAT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일용품 예를 들어 음식, 물, 약품에는 6%가 부과된다. 한편, 공공지원 주택(social housing)과 레스토랑 서비스, 특정 농산물 및 새 건물에 필요한 자재, 석탄과 같은 일부 에너지 자원, 비료, 살충제 및 농업용 자재 등에는 12%가 부과된다. 자세한 품목별 세율 목록은 EU 조세 데이터베이스(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tedb/#/vat-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벨기에는 VAT 한도가 있어 수입이 15,000 유로 미만인 경우 VAT 면제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petite entreprise/ kleine onderneming status*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휘발유, 석유, 등유, 미네랄 워터, 맥주 등에 특별세로 물품세(*accise / accijnzen*)가 부과되며, 재사용 포장재를 제외한 재생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환경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 환경세의 경우, 폐기처분 비용 충당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며 소비자 구매가격에 별도로 추가되고 세액은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품목별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의 벨기에 세관당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finance.belgium.be/en/customs_excises/enterprises/excise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무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EU는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에서 회원국 간의 지재권 정책의 통일화와 지재권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정책 통일화는 회원국 간의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재권 보호정책은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되며, 저작권 위반 및 위조품들이 미치는 EU 내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유럽기구(유럽특허청, 지재권청) 등이다. 집행위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있어 주도적으로 EU 차원의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연방 정부 경제부 내 지식재산권 관리부(OPRI: Office Belg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에서 EU가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국내 지재권 보호 관련된 법규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 벨기에 지식재산권 관리부 홈페이지 : <https://economie.fgov.be/fr/themes/propriete-intellectuelle/office-belge-de-la-propriete>

○ 특허권

벨기에서 특허를 보호받는 방법은 벨기에 지식재산권 관리부(OPRI)에서 등록하거나 유럽특허청(EPO) 내 EU 공동 특허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유럽 특허청을 이용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특허권을 획득 하거나 수정이 되었다면, 각 회원국 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1회 출원만으로 특허권 보호가 가능하다. 즉,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 내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 <https://www.epo.org/>

○ 상표권

벨기에 내 상표권은 베네룩스 상표 사무소(The Benelux Trademarks Office)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베네룩스 공식 상표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보호기간 종료 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베네룩스 상표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boip.int/en/entrepreneurs/trademarks>

이 밖에도 EU 지재권청(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EUIPO)이 부여 및 관리하는 EU 상표가 있다. 이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한다. EU 상표는 EU 전체에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활동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동 상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EU 회원국 내 상표권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한 회원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다른 회원국 내에서도 자동으로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U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포장은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시각화된 자료(graphical representation)는 물론이고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디지털 파일 형태의 상표 등록 또한 가능하다. EU 상표 출원 시, 상표권에 대해서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등록 후에는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할 수도 있다.

- EU 지재권청 홈페이지 : <https://euipo.europa.eu/ohimportal>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벨기에에 진출한 많은 기업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벨기에에는 근로자 보호법이 엄격하므로 예기치 않았던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기에 기업 청산 및 철수는 크게 해산(Dissolution)과 청산(Liquidation)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업 청산은 크게 자발적 동기, 법에 따른 결정,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청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벨기에에서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개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해관계 문제(예: 분쟁, 부채 등)가 없는 경우 간소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표준절차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해산과정 후 청산을 통해 기업의 법률 및 재산관계가 마무리되며, 이후 사업자 등록부에서 기업등록을 말소하면 기업 청산이 완료된다. 회사 청산이 결정되었으면 주주총회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회사대표로부터 작성된 법적 근거
- 자산 및 부채가 명시된 자산 운용 보고서(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 위원(Commissioner) 보고서. 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회계사의 보고서

1) 청산인 임명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면 한 명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대표자가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며, 기업 청산의 원인이 법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경우 청산인은 기업에서 임의로 임명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지명된다. 법원은 기업에서 임명한 청산인의 자격을 검토하고 만약 청산인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임명을 해제할 권한을 지닌다. 이 경우, 청산인은 법원으로부터 지명받게 된다. 한편, 청산을 원하는 기업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다수의 청산인 후보를 지정한 후 법원에 제출해 법원에서 청산인을 직접 지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2) 청산 보고서 작성 및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청산 만료 한 달 전에 관련 보고서를 본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 채권자에 변제를 하며 모든 부채의 변제가 완료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때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된다. 한편, 잔여 채무가 있을 시 회사 청산은 불가능하며, 일련의 청산 계획은 상업재판소의 승인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한다.

3) 청산문 제출

청산인은 청산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쯤에 해당 상업재판소 기록부(Greffes du tribunal de commerce)에 가서 기업 청산 상황을 담은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산절차 개시 1년후 부터는 1년에 한번 제출하면 된다(기업코드 Code des sociétés 제 189 bis 조항). 이 밖에도, 주주총회로도 관련 세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총회로부터 청산 종결에 대한 승인을 얻으면 이를 상업재판소에 신청하고,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청산 종결에 대한 총회의사록을 공고한다. 왕령 공고 시 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4) 말소

이후, 벨기에 사업자 등록부(Banque carrefour des entreprises)는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기업을 말소한다. 청산 종료 후에는 공증인의 관여 의무는 없으나 제반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청산 종료 후에도 수동적 법인(passive legal entity) 형태로 5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추가적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조건부 간소 절차

청산 시 채무가 없으며 주주로부터 만장일치 동의를 얻고 별도로 임명된 청산인이 없는 경우, 위의 상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빠르게 청산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외부 회계사와 감독인 각 1명을 지정해 최근 3개월 내의 기업 자산 및 채무 상황 보고서(active et passive)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이사회 청산 동의를 얻으면 즉각적 청산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공증서류를 상업재판소에 제출하고 벨기에 왕령(Moniteur belge)에 종결 공고를 내면 청산이 완료된다.

- 벨기에 내 청산 및 철수 전문 법무법인

* Unizo : 전화번호 +32-2-212-25-10 이메일 : brussel@unizo.be 홈페이지 : www.unizo.be

* UCM : 전화번호 +32-2-775-03-80 이메일 : info@ucm.be 홈페이지 www.ucm.be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벨기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시장이다.

벨기에는 연방제 국가로 크게 브뤼셀, 플란더스, 왈로니아 3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국토 면적이 좁지만, 연방정부 외에 지역권 및 언어권에 따라 5개의 지방 및 공동체 정부가 있어 총 6개의 정부가 존재하며, 총 3개의 언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브뤼셀 및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일부 독일 인접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출신 지역 및 언어에 따라 같은 벨기에인이더라도 사고방식, 소비자 행동양식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에서는 왈로니아 지역보다 네덜란드와 문화적으로 더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왈로니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플란더스보다는 프랑스와 문화적 특징이 더 비슷하다. 수도가 위치한 브뤼셀 지방의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 인구 비율이 약 40%가량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큰 편이다.

시장 트렌드와 소비 성향 역시 해당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 진출 시 테스트 시장으로 삼기 좋다. 참고로 제품의 패키징 및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독일어와 영어 옵션이 제공되기도 한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 인구수: 11,697,557명(2023년 1월 1일 기준, 벨기에 통계청)
- 인구성장률: 0.98%(2023년 1월 1일 기준, 벨기에 통계청)
- 평균연령: 평균연령 41.3세(2023년 기준)
- 인구구성: 노동인구(15~64세) 63.57%, 유소년 인구(0~14세) 17.22%, 고령인구(65세 이상) 19.21% (2020년 기준)
- 경제성장률: 1.5%(2023년 EIU 통계치)

<자료원 : 벨기에 통계청(Statbel), Worldometer, Indexmundi, EIU 리포트>

소비 성향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벨기에는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와 부족자원은 부족한 편이나 도로, 철도, 해운 등 물류 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망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벨기에 시장은 전 세계 상품이 모여들어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따라서 수입 상품 간 경쟁이 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등)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명과 그와 연계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벨기에는 빈부 차이가 작고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정된 사회로, 국민 소득은 높은 편이나 조세 부담률 또한 높아 총소득보다 실질 가처분소득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제품을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소비 습관을 지니고 있다.

2) 소비자 구매 트렌드

○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2023년부터 전기·가스비 등의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고는 있으나, 2022년 러·우 사태 영향으로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 우수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난방뿐 아니라 대기전력을 계속 소비하는 가전의 경우에도 제품의 브랜드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많이 고려하여 구매하는 추세이다.

난방의 경우 EU 역내 가스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가스 난방의 대체재인 히트 펌프의 수요가 증가했다.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는 가스 난방이 아닌 전기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양상으로 벨기에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도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노베이션 역시 의무화될 전망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3년 초 브뤼셀 시내 교통권(10회권 기준)이 15.6유로에서 16.8유로로 인상돼, 월정액으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와 속도, 충전속도가 개선된 고성능 전기 자전거는 고가의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 친환경·유기농 제품의 높은 수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편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한 낙농업, 육가공품, 음료 등의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The Barn 등의 유기농 제품 전문 소매업체의 수가 많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그린슈머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 주방 용품, 유아 용품 등 소비재 전 분야에서 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품 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신경을 써 지나친 플라스틱 패키징이나 포장재가 많이 사용된 제품을 꺼리고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에 대한 소비자 및 유통업자의 선호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2023년 2월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렸던 한국 아이돌 에이티즈의 콘서트 전석 매진과 더불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 연이은 한국 콘텐츠의 벨기에 내 흥행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타 소비재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 내 자체적으로 설립된 한류 관련 비영리단체 K-팝 벨기에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 부상한 한국 상품에 이미지로 인해 구매 접근성 또한 용이해졌다. 한국식품의 경우, 이전에는 주로 아시아 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 까르푸와 같은 일반 대형 식품 유통망에서 만두, 라면 등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아마존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한국식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 레스토랑의 숫자도 많이 늘어난 편이다.

화장품의 인기 또한 두드러지는데, 초기에는 벨기에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숯, 흑설탕, 쌀 등의 자연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기초 제품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제품 전반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Stylevana.fr', 'koreanskincare.be'와 같은 현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현지 화장품 회사들도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인정해 한국 제조업체에 OEM을 문의하는 등 한국 화장품이 화장품 업계 전반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화장품 인증 및 컨설팅 현지 기업인 Biorius에 의하면 2023년 유럽 화장품 시장은 비건 제품 또는 제품 용기와 포장에서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도 이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출시해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미팅 시 유의 사항

비즈니스에 있어서 벨기에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서론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언제 본론이 나올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인사말을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에 대해 그림을 그리든지 종이에 써가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발표하거나 대화하는 도중 혹은 식사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휴대전화 사용을 주의하며, 급한 용무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 미팅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이것 또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이다.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는 많은 기업이 가격 정보 이외에도 운송 조건, 통관, 지불 방법 등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만약 제시하는 물품의 주요 정보(가격 제외)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상담 전에 미리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품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을 추천하는데, 벨기에 바이어들은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본 후에 상품의 재질, 기능, 시장성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상당수 있다고 무역관에 밝혔다. 상담 도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되물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Yes'로 대답하고 나중에 회사로 돌아와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하려는 제품과 바이어 업체가 원하는 제품 사양과 맞지 않는 경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관련 대화를 지속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직접적인 관련 바이어가 아닐지라도 시장 정보 등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바이어를 소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보수적인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신용 거래가 어렵게 되고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첫 거래 시 수출 가격이나 발주 기간, A/S 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차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 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현지 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유무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때는 상황 설명과 함께 바로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 동남아 수입 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 업체는 L/C 무역 결제에 익숙하므로 L/C 대금 지불을 요구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로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장거리 해외 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업체 가운데에는 L/C나 통관 절차 등 국제무역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품 인도에 앞서 상품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꺼리는 수입상들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므로 동일한 대금 지불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지불 방법을 제시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무역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거래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제품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분담하는 거래 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FOB 또는 CIF 조건이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하역 또는 벨기에 세관에 묶여 통관이 지연되면 모든 발생 비용을 수출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환율 변동,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한 후 가격 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현지 바이어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개설한 상태에서 환율 변동 또는 운송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기업의 신용은 물론 현지 바이어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즈니스 거래 시 유의할 점

유럽 중심부에 있는 국가답게 국제적이며 다양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는 테스트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전 세계로부터 매우 다양한 상품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현지 물품 재고 부족으로 급히 신규 공급 업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게다가 기존 공급 업체에 만족하는 경우, 거래처를 유지하려고 하지 굳이 신규 공급 업체를 찾아서 거래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를 지속해 온 기업 담당자 간의 사적인 유대감이 매우 단단하므로 현지 기업에 신규 거래 제안을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규 공급 업체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 거래를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접촉 이후 첫 거래까지 오랜 시간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 미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 연락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연락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말고 신규 디자인과 모델,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대로 제품 소개 자료, 샘플 등을 보내주는 등 지속적 관계를 이어 나가 향후 오더를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첫 거래 시에는 대량 거래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소량으로 점차 신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 바이어들은 한 번 신뢰가 쌓이면 가능한 한 거래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현지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를 확인해 무역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에서 현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벨기에 기업 실존 여부 확인 사이트: <https://kbopub.economie.fgov.be/kbopub/zoeknummerform.html?lang=en>

만약 기업의 실존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 KOTRA의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무역관에 조사 의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자리 잡은 비대면 마케팅 전략

포스트 코로나로 대규모 전시회 및 박람회가 정상 개최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자리 잡은 재택 근무 및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형태가 벨기에 비즈니스 문화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해외 마케팅의 한 축으로 화상 비즈니스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맞춰 벨기에 정부도 5G 상용화 등 통신 분야 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화상 상담 시, 바이어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담 전에 인증서, 시험 성적서 등의 제품 스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재 제품의 경우 크기가 작으므로 상담 시 카메라를 통해 제품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

계 등 부피가 큰 제품은 불가능하므로 제품의 시연 동영상, 화상 설계도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비대면 상담의 효율성을 보다 증대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화상 미팅의 경우 대면 미팅 대비 바이어 집중도가 쉽게 떨어지고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긴 회사 소개 등은 가급적 피하고 제품 특징, 타사 대비 강점 위주의 설명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 전, 리허설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어를 설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미팅 약속

벨기에 기업과 미팅 약속을 잡을 때에는 날짜가 임박해 잡지 말고 최소 2~3주 전에 잡아야 한다. 날짜가 임박해 약속을 잡으면 계획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벨기에인은 약속 시각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므로 미팅 전 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고 만일 기업을 방문할 때는 방문하는 목적, 방문자 이름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상대방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7~8월 및 12월 중순~1월 초까지는 여름 휴가 및 크리스마스 휴가로 2~4주간 장기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에는 미팅 약속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벨기에 인건비가 매우 높으므로 업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중시하고, 실적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의 주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알리고 미안함을 표명해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 추후 비즈니스 관계를 원만히 이어 나갈 수 있다.

2) 인사

성별 구분 없이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의 일반적 인사 방법이다. 인사할 때는 손을 가볍게 잡으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데, 인사말을 건넬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통성명을 하면 한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더욱 친근한 사이에서는 서로 뺨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를 비즈(Bise, 또는 네덜란드어로)라고 부른다. 비즈를 하는 방법은 왼쪽 뺨끼리 맞댄 후 입으로 가볍게 ‘쪽’ 소리를 내면 되는데, 남성끼리는 통상적으로 비즈보다는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악수할 때는 손에 너무 힘을 짝 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잡게 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힘을 주면서 몇 초간 악수하면 된다. 한편, 악수는 두 손으로 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비즈니스 상담에 들어가기보다는 날씨나 상대방도 알고 있을 만한 큰 세계적인 이벤트(월드컵 등)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미팅 전에 미리 명함을 비롯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가 상담을 시작할 때 바이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미팅이 끝난 후에는 첫 인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악수를 교환하며 마무리한다. 헤어질 때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합시다’라는 우리나라식의 인사말을 하는 경우, 벨기에 사람들은 정말로 나중에 식사해야 한다고 약속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

3) 선물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간소한 기념품 증정은 초기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때로 일부 한국 업체들은 한과 또는 홍삼 제품 등과 같은 건강 식품류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받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선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특유의 식품보다는 한국 전통이 가미된 기념품 또는 실용성이 있는 홍보 용품을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초대 받았을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예의이다. 통상적으로 20~30유로 선의 와인이나 수제 초콜릿, 꽃(특히 여성의 경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초대할 가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현지에서는 고품질 문구류의 가격이 높은 편으로 한국산 문구류를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현지 파트너 집들이에 초대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티슈나 세제를 집들이 선물로 주는

것이 관습이지만,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없으므로 화장지를 선물로 주는 경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초대 선물과 비슷한 꽃이나 와인, 초콜릿 등을 준비해 갈 것을 권하며, 선물로 꽃을 선택할 경우, 벨기에에서 국화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국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벨기에인은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므로 만약 포장된 선물을 받고 열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가져간다면 이상하게 여기며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 바로 열어보고 선물이 마음에 들거나 좋다는 반응을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네는 것이 좋다.

4) 복장

벨기에 사람들은 비즈니스 미팅 시 남녀 모두 정장을 입는 편이다. 색상과 스타일은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기하는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검정, 검색, 회색 등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선호하고, 너무 화려한 색깔은 피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인은 외모, 복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깨끗하고 말끔한 복장과 단정한 차림으로 미팅에 임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벨기에 날씨는 한국보다 변동이 심해 아침에는 맑다가 오후에 비바람이 부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첫 비즈니스 미팅에 젖은 채로 나가는 것보다는, 항상 우산과 방수 기능의 외투를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5) 식사

벨기에인들은 식도락가이고,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대화가 식사를 나누면서 이루어진다. 사업상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 경우 딱딱한 사무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좋은 식사를 나눌 때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 레스토랑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 벨기에에는 레스토랑 예약 문화가 발달하여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할 것을 추천하며, 보통 비즈니스 식사 시간은 12시 30분~14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진다.

현지 레스토랑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레스토랑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이미 예약한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뒤,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벨기에인들 중에는 무슬림, 채식주의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전에 상대방의 식성을 미리 파악해 무슬림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피하고 술을 권하지 않는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식사 중,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리거나 말하는 것을 지양하며 껌 소리를 내거나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면을 먹게 되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것에 대해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면류를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는 한국과는 달리 한 손으로만 따르며, 술잔을 받을 때 역시 한 손으로 받는다. 또한, 건배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음식을 가능한 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현지 음식을 먹으며 느끼하다고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김치를 꺼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채비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코를 훔쩍거리는 것을 더럽고 불쾌하게 여기므로 코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려 살짝 푸는 편이 좋다.

6) 언어

벨기에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공동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더스 공동체 그리고 독일어권 공동체와 같이 총 세 개의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왈로니아(프랑스어)는 벨기에 전체 인구의 40%를, 플란더스(네덜란드어)는 59%, 독일어권 공동체는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 업체와의 약속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약속을 잡기 전에 담당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영어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7) 근무/영업시간

벨기에에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은 산업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산업이면 최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근무 시간은 직장 또는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통상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이다. 또한, 언어권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덜란드어 권의 직장인들은 프랑스어 권 직장인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며(통상 7~8시), 점심시간도 30분 정도만 사용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프랑스어 권 직장인들은 9시경에 출근을 시작하고, 평균 1시간 반 정도의 점심시간을 가지는 대신 퇴근은 그만큼 늦게 하는 편이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19시,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30분~20시이며 금요일에는 21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다. 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 기관의 근무 시간은 통상 평일 8시~15시(점심시간 12~1시)까지 이나, 목요일은 예외적으로 2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평일 9시 30분부터 근무하며, 요일에 따라 마감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긴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 가게, 'night shop'(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한국의 편의점과 유사한 상점)과 같은 일부 상점이 문을 열며, 요즘에는 벨기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 Delhaize와 Carrefour 역시 일부 지점이 일요일에 영업하기도 한다.

8)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 시간으로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16시이다. 서머타임제(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3시로 변경)가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평소보다 1시간 짧아져 한국이 자정일 때 벨기에는 17시가 된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머타임 해제일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로, 새벽 3시에 2시로 변경됨) 시차는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Bol

사이트 주소	https://www.bol.com/be/nl/
개요	다양한 DIY 상품 등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배달 서비스 등이 가능하며 베네룩스 지역 전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매출규모 43억 유로, 고용 규모는 3000명 내외
주요 판매 품목	생활소비재 및 잡화

○ Showroomprive

사이트 주소	https://www.nl.showroomprive.be
개요	회원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주로 남성, 여성 및 아동 의류나 신발 및 가정용품을 번개딜(flash deal)의 형태로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2,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6개 정도의 새로운 브랜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쇼룸프라이브는 2006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매출규모는 5억 2천만 유로이고 고용인원은 800명 가량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신발, 장신구, 유아용품, 가구 및 가전 등이 주로 거래 중이다.
특징	할인의 폭은 정사가에 비하여 매우 큰 편이나, 반품이나 교환의 절차가 편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 Vinted

사이트 주소	https://www.vinted.com
개요	빈티드는 개인간의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으로 웹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6,5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개인간 중고물품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빈티드는 2008년 리투아니아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비상장 벤처회사라 수익은 비공개이나 2018년에 마지막 공개된 매출액은 3,290만 유로이며, 주로 거래금액의 19%를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약 1,2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신발, 장신구, 유아용품 및 개인 생활용품이 주로 거래 중이다.
특징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 및 구매를 할 수 있어 재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폐기물 감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20~30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o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벨기에 대형 코스메틱 리테일러에 납품 예정인 Z사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Z사는 오랫동안 유럽진출 시도를 하였으나 대형 바이어와의 접촉 자체가 힘들었고, 소형 바이어와의 거래는 소량 주문으로 인한 고가의 항공 운송비용 부담으로 번번이 장벽에 가로막혔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한류열풍의 여파로 한국산 화장품 제품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주목, 벨기에 대형 코스메틱 리테일러 디(Di)와 트래픽(Traffic)에 납품 중인 중간 거래상을 찾아 Z사를 연결해 주었다. 그 결과 2023년 5월 약 7,000달러 가량의 물량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디(Di)와 트래픽(Traffic)에서 Z사 제품이 판매가 시작되면 대량으로 재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o 고급화 전략으로 까다로운 EU 시장진출에 성공한 김치 제조업체 K사

최근 EU의 젓갈류 수입 규제로 인해 김치 수출이 자유롭던 이전과는 달리 EU인증을 받은 젓갈을 사용한 김치 또는 젓갈류만 수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한국 김치 제조사들은 EU에 김치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K사는 까다로운 규제가 오히려 기회를 감지, 홍삼엑기스 등의 고급재료와 EU에서 인증을 받은 젓갈을 사용한 프리미엄 김치를 제조하였고 현지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할랄 인증까지 받았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벨기에의 대형식품수입업체와 K사를 연결해 주었다. K사는 2022년 7월 약 2,000달러 가량의 수출에 성공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o 약속을 지켜 바이어의 신뢰감을 얻어낸 S사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던 차에 브뤼셀 무역관을 찾았다. 무역관은 S사의 생산품목과 맞는 벨기에의 잠재 바이어 B사를 발굴했고, B사 바이어와 사이버 상담회를 제안했다. 두 업체 간의 사이버 상담회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상담회 후 S사는 직접 벨기에 바이어 B사를 방문하기로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벨기에 바이어 B사는 한국의 S사 제품에 대해 약간의 관심은 보였으나, 정확한 가격 견적을 묻거나 샘플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S사에서 벨기에를 방문했던 시기는 2013년 1월이었는데 하필 벨기에 사상 최고의 폭설이 내리던 때였다. 폭설로 대중교통들도 운행을 멈췄으며,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브뤼셀 무역관에서 바이어 B사까지는 보통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이날은 폭설로 3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바이어 B사는 폭설로 인해 S사와 브뤼셀 무역관이 예정대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아주 놀라워했고, 이상기후에도 미팅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에 큰 감동을 하였다고 했다. 이날 미팅은 첫 오더의 성과로 이뤄졌으며, 이후 S사는 바이어의 세부 요청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o 한국-EU FTA의 관세혜택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던 E사

벨기에 섬유산업은 국내 생산이 매우 미미한 상태라 거의 수입에 총당되고 있으며, 의류 등 소비재와 더불어 합성 원사 또는 편직물 위주의 오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직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 FTA 발효 이전부터 벨기에 기업과 거래를 해왔으나, 바이어로부터 E사 제품가격이 터키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높다며 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이윤만을 남기고 제품 거래를 해오던 터라, 더 이상의 가격 인하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FTA 발효로 종전 8%였던 관세가 무관세로 되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E사는 특별히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수출하던 품목 가격이 인하됐고, 벨기에 바이어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바이어와 거래처를 계속 유지하며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o 끈기 있는 접촉 시도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낸 G사

한국에서 무선영상전송장치를 생산하는 G사는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기능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개척해왔으나, 국내 시장의 작은 규모에 한계를 느껴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전시회 기간 중 만났던 벨기에 업체 중 한 바이어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하던 국내 기업은 이 같은 상황을 브뤼셀 무역관에 문의해왔다. 무역관에서 해당 바이어를 접촉한 결과, 당시 벨기에 바이어는 전시회에서 A사와의 미팅 이후 동시에 자사 인콰이어리를 보내는 등 수차례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계약성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었다. G사와 브뤼셀 무역관은 그동안 양측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벨기에 바이어로부터 첫 샘플 오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벨기에의 까다로운 통관 시스템으로 샘플제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무역관과 A사는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

해 바이어가 차질 없이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바이어의 요구사항에도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G사는 결과적으로 바이어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유럽 독점판매계약 추가 체결 등 향후 수출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o Director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수출을 이뤄낸 C사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C사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으나 유럽시장은 신규 공급처에 대한 보수성과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역관에서 발굴한 벨기에 바이어 D사는 유럽의 인테리어용 석자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유럽 전역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다. 'Belgian Quality'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품질에 민감한 바이어이기에 무엇보다도 고객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접촉 초반부터 샘플 테스트를 제안해 바이어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많은 기업은 바이어를 접촉하는 경우 통상 구매담당자나 기술 담당자를 파악하여 제품을 홍보하는데, 보수적인 유럽 바이어들의 특성상 검토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특히 업무 분장이 명확한 유럽 기업들은 구매부서에서는 품질부서의 승인을 핑계로, 품질부서에서는 공급처에 대한 선정 권한이 구매부서에 있다는 핑계로 신규 공급 업체들과의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관에서는 역으로 사장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고, 샘플 테스트 제안이 Top down 방식으로 현업 부서에 전달되도록 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샘플 테스트 결과 확인 및 성약 구체화를 위해 고객사를 동반해 바이어를 방문했으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어필해 바이어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재 동사는 벨기에에서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o 전시회 부스 참가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어필한 D사

디지털 라벨링용 잉크젯 인쇄기를 생산하고 있는 D사는 국내에서는 이미 선도적 중견기업이나 해외시장에서 사업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을뿐더러 단독으로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동사는 구매력이 높고 디지털 프레스 품목 수요가 증가 중인 유럽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KOTRA 브뤼셀 무역관과 월드챔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D사는 KOTRA의 월드챔프 지원사업을 통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2016 Drupa 전시회에 비교적 큰 독립부스를 가지고 참가했다. 대형 디지털 라벨 인쇄기 장비까지 준비해 전시회 현장에서 시연을 보였는데, 많은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방문객에게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딜러 51개사, 엔드유저 63개사 등 총 114개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그리스 업체 G사와는 딜러 계약을 체결해 현장에서 39만 유로에 달하는 대표 장비 1대 판매계약을 따냈다. 향후, 동사는 약 50개사 딜러 희망업체 중 18개사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가망 딜러 선별 및 집중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딜러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o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취소될 뻔했던 성약 이행

한국-EU FTA에 의거, 대다수의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증명을 통해 벨기에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벨기에 바이어 R사는 국내 수출업체와 3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X-ray 기기 수입성약을 앞두고 무역관에 관세부과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동 바이어사는 해당 품목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지만, 수입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성약 취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관은 한국-EU FTA 발효로 해당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바이어측에 즉시 알렸으며, 국내 수출업체에도 접촉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했다. 한국-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6,000유로 초과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역관 측의 안내를 받은 국내 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받아 인증수출자 등록을 마칠 수 있었으며, FTA 무관세 혜택을 받아 벨기에로 관련 기기를 무사히 수출할 수 있었다.

o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해 제품 수출 중인 L사

사다리차를 제조 중인 국내 기업 L사는 KOTRA의 지역 강소기업 시장조사를 통해 브뤼셀 무역관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긍정적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사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다리차의 경우 기존의 상용 트럭에 사다리차를 장착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벨기에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운전면허인 B 타입 면허로 3.5톤 트럭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모델에 장착할 사다리차 개발과 장착 후 제한무게 3.5톤을 넘지 말아야 한다. 동사는 바이어와 협의 끝에 관련 모델 개발을 완료했으나, 장착 후의 총 무게가 3.5톤을 넘어 수출을 위해서는 무게감량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이에,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닛산 모델 차량을 조사해보니 동일한 모델(3.5톤 NT400)임에도 캐빈 및 바퀴 종류에 따라 총 9가지의 세부모델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별 브로셔마다 무게측정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각 세부 모델별 무게와 무게측정 기준을 체크, 바이어에게 사다리차 장착 후 제한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모델을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바이어는 무역관에서 제공한 차량 및 무게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구입 및 사다리차 2대(약 5만 불)를 1차로 주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주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o 현지 유통기업과의 독점계약 체결로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S사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 체외진단시약을 수출 중인 S사는 유럽 허브인 벨기에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번에 다양한 질병 원인을 동시 분석하는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원천기술 보유로 해외 여러 곳에서 큰 호응을 받는 등 시장성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였으나 어떻게 처음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제품 포지셔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했다. 이에, 동사는 여러 파트너사와 다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독점적으로 자사 제품에만 집중해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을 통해 벨기에 내 유망 파트너 4개사를 선정, 미팅을 진행해 후보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만 집중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첫째 연도에 약 28만 USD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연간 100만 USD 이상의 성약액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벨기에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M사

엘레베이터 부품을 제조업체 M사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화상상담을 통해 벨기에 첫 수출에 성공했다. 동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벨기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해외시장 진출이 처음이라 KOTRA의 수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브뤼셀 무역관은 잠재 수입기업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바이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화상상담을 주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여러 번의 화상상담 후, 2020년 9월 첫 수출성약이 이루어졌고 무역관은 수출과정에 필요한 서류, 통관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해 첫 수출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 벨기에는 거래선 발굴과 시장진입이 어려운 반면, 한번 바이어와의 인연을 맺은 후 거래선이 바뀌는 일은 드물어서 앞으로도 M사의 지속적인 대벨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 진출 전 CPNP 등 의무사항 구비완료해 수출기회를 잡은 Y사

벨기에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 Y사는 2020년 말 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잠재 바이어사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화상상담 진행을 시도했다. 벨기에 바이어사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위해 그동안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으나, EU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CPNP 등록을 한 기업들은 드물었다고 밝히며 CPNP가 없는 기업과의 미팅은 시간적 낭비라는 단호한 의사를 전했다. Y사의 경우, 벨기에를 포함한 EU 시장진출을 위해 이미 CPNP를 사전 획득해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화상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상담 후 Y사의 샘플을 받은 바이어사는 품질에 만족했으며 올해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사의 경우, 벨기에 화장품 시장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이에 대해 인증 획득 등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출 잠재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잡을 수 있었다.

○ 한류의 인기를 타고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A사

K-POP 음반과 굿즈, 화장품을 취급하는 A사는 한류 열풍이 부는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차에 브뤼셀 무역관에 지사화 사업을 신청했다. 마침 벨기에에서는 2021년 한국과의 수교 120주년을 맞이해 각종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진행중이던 잠재 바이어들을 행사에 초대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운영된 판매 부스에서 A사가 준비해온 제품은 모두 품절되었으며, 홍보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60달러 정도의 초기 수출액은 21년 41만불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는 현지에서 물건을 유통하는 쇼핑몰까지 개설한 A사의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된다.

○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타깃바이어 변경으로 EU수출에 성공한 김치제조업체 L사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희망한 국내 김치제조 기업은 무역관과 다년간 협업한 현지 유통망에 김치 샘플을 배포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아시아 음식이 생소한 소비자들에게 향과 국물 때문에 김치를 잘라서 먹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 이로 인해 김치를 하나의 식자재로 인식시킬 필요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제품 홍보를 위해 김치를 식자재로 활용하는 요리의 조리법을 함께 홍보에 주력하기 시작. 동 기업은 연중 개최된 다양한 행사(오프라인 B2B 판촉전, 유통망 연계 B2C 판촉전, 식품 박람회 부스 참가)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한 결과 현지 대형 식자재 유통망에 납품하는 협업 벤더사에 납품 성약이 이루어짐. 미국과 영국에만 수출하던 동 기업은 해당 성약으로 인해 EU 수출의 가능성을 열게됨.

나. 실패사례

○ '22년 러·우사태로 인해 놓친 아쉬운 수출 기회

T사는 반려동물 아이টে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한국 및 유럽에서 여러 차례 디자인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을 앞세워 벨기에 및 유럽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 제품별로 정성껏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여 바이어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제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제품별 기본정보와 수입에 필요한 포장단위까지 잘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 바이어 요청 시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해 두었다. 이에 반려동물 제품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벨기에 바이어 K사에 제품을 소개하고 화상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 및 샘플 오더를 받아 샘플을 송부하였다. 하지만 K사로부터 '22년 러·우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반려동물 아이템에 대한 수요 감소와 높아진 물류비로 유럽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현재 T사의 제품 수입은 어렵다는 아쉬운 답변을 받아 정식 오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T사의 제품력의 문제나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좌절된 만큼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운송비 하락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머지않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벨기에 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벨기에 이민청 홈페이지 및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벨기에 이민청 홈페이지: <https://dofi.ibz.be/en>

- 주한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 <https://republicofkorea.diplomatie.belgium.be/ko>

o 비자 종류 및 필요 서류

- (종류)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VISA D에 해당하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 동반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구원 비자, 자영업 비자가 필요

- (공통 필요 서류) 여권(유효 기간은 비자별로 상이),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2매

* 모든 서류는 각각 사본 2부(양면)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비자 신청 시기) 비자 신청은 출발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늦어도 15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학생 비자

- 여권 : 유효 기간은 벨기에 여행 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

- 진행 수수료 : 237유로 송금 확인서

* 벨기에로부터 장학금을 제공받는 학생은 진행수수료를 면제 받으며,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로 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 프랑스어권 학술 기관 학사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이전 학력 확인서 필요

- 재정 능력 증명: 재정 보증서 또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증명서 원본 제출

-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18세 이상)

-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사고나 질병에 의한 의료 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하며, 벨기에 도착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간 유효해야 함)

- 건강 진단서: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 확인 필요)

- 영문 질문지: 벨기에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교환 학생, 벨기에 장학생, 선발 시험 통과 학생은 면제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 비자 발급 후 벨기에 도착 시, 8일 이내에 거주 도시의 구청에 거주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재정능력 증명서 및 대학입학허가서 등의 서류 필요

(2) 취업 비자

*단, 취업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사전에 벨기에 기업과 고용 계약을 한 경우에만 취업 비자가 발급 됨

- 여권 : 유효 기간은 벨기에 여행 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
- 복합 허가서(Single Permit) 승인 확인서(사본)

(3) 가족 동반 비자

① 배우자 및 자녀 - EU나 EEE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자와 동반

- 여권 : 15개월 이상 유효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 (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진행 수수료 : 206유로 송금 확인서 (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벨기에 내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경우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의 사본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증명
- 벨기에에서 내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경우 사람의 재정 능력 증명서
- 벨기에 내 충분한 거주지 증명
- 모든 가족 구성원이 벨기에 내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었거나 곧 가입 예정이라는 증명 혹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여행자 보험의 경우, 사고/질병에 의한 의료 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 유로 이상 보장
- 건강 진단서: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 확인 필요)
-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18세 이상):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제출

② 배우자 및 자녀 - 벨기에 시민권자와 동반

- *건강 진단서 필요하지 않음
- 여권 : 15개월 이상 유효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
- 진행 수수료 : 206유로 송금 확인서 (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 (양면)과 여권의 사본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재정 능력 증명서
- 벨기에 내 충분한 거주지 증명
- 모든 가족 구성원이 벨기에 내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었거나 곧 가입 예정이라는 증명 혹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 여행자 보험의 경우, 사고/질병에 의한 의료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각 항목별 30,000 유로 이상 보장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필요

③ 배우자 및 자녀 EU나 EEE 회원국 시민권자와 동반

- 여권 : 15개월 이상 유효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
- 진행 수수료 : 206유로 송금 확인서(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기본 증명서(미성년 자녀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벨기에 공식 언어 및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18세 이상):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벨기에에서 합하게 될 사람의 벨기에 현지 체류증(양면)과 여권의 사본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작성한 영문 출국 허가서

(4) 워킹 홀리데이 비자

- 여권 : 유효기간은 벨기에 여행 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
- 진행 수수료 : 229유로 송금 확인서
- 최소 375만원 이상 보유 잔고 증명서 또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포함한 신용카드(벨기에 거주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 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18세 이상):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건강 진단서: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 확인 필요)

(5) 연구원 비자 : 박사 과정 학생, 박사후 연구원, 방문 교수, 호스팅 계약 경우에 해당하며 항목별로 상이

- 박사 과정 학생 : 학생 비자 신청
- 박사 후 연구원 및 방문 교수 : 복합 허가서(Single Permit) 취득 후 취업 비자 신청
- 호스팅 계약 : 취업 비자 신청

(6) 자영업 비자(자영업 카드(Professional Card) 발급자에 해당_ 자영업 카드는 사업을 할 지역(브뤼셀, 왈로니아, 플랜더스)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여권 : 유효기간은 벨기에 여행 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공백 페이지 최소 2면 이상
- 비자 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 비자 수수료 : 270,000원(비자 접수 당일 대사관에서 카드로 결제)
- 진행 수수료 : 229유로 송금 확인서
- 자영업 카드 발급 증명서
-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만 18세 이상):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건강 진단서: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대사관 지정 병원 의사 명단 확인 필요)

○ 체류(외국인 등록)

- 벨기에 입국 후, 주거지 근처의 해당 구청(프랑스어권: Commune, 네덜란드어권: Gemeentehuis)을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

류증(ID card)을 발급받아야 한다.

- 구청 검색 홈페이지(영문):

https://www.belgium.be/en/contactinfo_en_sites/overview?f%5B0%5D=field_authoritylevel%3A38

○ 체류증 발급

- 벨기에 도착 후, 8일 이내에 거주 도시의 구청(코뮌)에 등록한 뒤, 주소 등록 후 구청(코뮌)에 체류증 발급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청에서 작성했던 주소로 경찰이 방문해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 후 거주 확인 서류에 서명하게 된다. 부재 중인 경우 경찰이 방문했다는 편지를 우편함에 두고 가므로 이를 들고 주소가 적힌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재방문을 요청한 후 거주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 된다. 거주 확인 서류를 들고 구청에 재방문해 제출하면 1~2주(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내에 체류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들고 구청을 방문해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구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5~40유로 정도이다. 벨기에 정부는 체류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긴급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발급비용이 180~230유로로 일반 절차보다 비싸지만 2~4일 내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체류증 제도

- 벨기에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장기 체류 허가증(최대 5년)이 영주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가능하다. 단기 체류는 C card(셴겐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며,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의 경우는 D card에 속한다.

- A card : 임시 체류증

- B card : 일반 단기 체류증

- C card : 일반 단기 체류증(전자)

- D card : 장기 체류증

- E, E+ card : EU 시민권자 체류증(EU 시민권자에게만 발급)

- H card : 블루카드로, 고급인력(hautement qualifié) 체류증(무제한 갱신 가능)

- F card :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거주증

- F+ card : EU 배우자를 두고 있는 역외국민 영구 거주증

○ 노동 비자 간소화

- 2019년 1월 3일부터 역외국민의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노동허가 및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복합허가서를 관할 구청(Commune)에 제출하면 사전심사 없이 구청에서 지방 노동청(노동허가) 및 연방 이민청(장기체류)에 서류를 보내 두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두 곳의 기관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중복으로 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변경된 개정법에 따라, 고용주는 지방 노동청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 노동청에서 심사를 거쳐 서류를 사전 점검하고, 통과 시 서류 복사본을 연방 이민청에 송부해 두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로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중전에는 9개월 소요). 단, 복합허가서 신청 대상자는 블루카드 소지 및 법인 간 파견근로자, 단기체류, 방문협정에 따른 연구원 등은 제외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외화 반·출입 한도

- 10,000 유로 이상 반입/반출 시 세관 신고가 의무다(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 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

○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 알코올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알코올 22%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는 2리터까지 가능. 와인(non-sparkling)은 4리터까지

허용되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

- 담배 : 궐련 200개비 또는 여송연 100개비, 시가 50개비, 엽초 250그램
- 기타 물품 : 항공·해상여행자의 경우, 총 430유로 상당 물품까지 허용되나 육로·개인항공·내륙수로 여행자의 경우, 300 유로 상당 물품까지 허용(주류, 담배 및 기타 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일반상점 또는 면세점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의약품 : 여행 기간에 여행자 사용 목적에 필요한 양(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증명서 지참 권고. 해당 증명서는 해당 약품의 처방 사실에 대한 의사 증명서가 있어야 함)

○ 반입금지품목

- 식품/농축수산물 :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은 보건당국의 확인 필요(해당 식품을 날것 및 냉장, 냉동 상태로 반입 하고자 할 때만 해당)
- 식물 : 별도의 허가 없는 식물은 반입 금지
- 동물 : 가축 소유증명서 및 지정된 동물연구소에서 발행한 혈액검사, 백신 인증서 등 수의검역문서 필요하며, 동물 개체인식시스템(칩)을 요구할 경우도 있으며 도착지 수의 검역시에 각종 관계서류 제출 필요
- 과일 : 반입 자제를 강력히 권고

○기타 유의사항

- 열차 여행시에도 항공기 여행 통과기준 및 절차 동일

○ 반입 금지품목 미신고시, 처벌

- 물품은 즉각 압류되며 해당 여행자는 형사 처벌됨. CITES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물품을 압류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형사 처벌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5-2,500유로의 벌금 및 15일-3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세관신고대상품목을 미신고시, 처벌

- 물품은 즉각 압류되어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될 수 있음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2 2 675 5777
주소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be-ko/index.do
비고	영사과민원실(월-금) 09:00-12:00 / 14:00-16:00

○ 한국 문화원

전화번호	+32 2 274 2980
주소	Rue de la Regence 4,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brussels.korean-culture.org
비고	개관시간 : 10:00~19:00

○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 지부

전화번호	+32 2 639 0990
주소	Avenue Louise 66, 1050 Brussels, Belgium
홈페이지	http://eu.kita.net

○ 재 벨기에 한인회

전화번호	+32 472 27 15 15
홈페이지	http://belgium.korean.net
비고	이메일: e-mail: info.korean.be@gmail.com (회장:신인숙)

○ 벨기에 한인과학 기술자 협회

홈페이지	http://koseabe.org
비고	이메일: koseabelgium@gmail.com

○ 한-EU 연구협력센터 (KERC)

주소	Rue de la Science 14, 1st fl. 1040 Brussels
홈페이지	https://k-erc.eu/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벨기에 연방정부

전화번호	+32 2 501 02 11
주소	16, rue de la Loi,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belgium.be

○ 브뤼셀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2 279 22 11
홈페이지	https://be.brussels/

○ 왈로니아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1 718 17 19
홈페이지	http://www.wallonie.be
비고	이메일: http://www.wallonie.be/fr/nous-contacter-par-mail

○ 플란더스 지방 정부

전화번호	+32 2 553 17 00
홈페이지	http://www.vlaanderen.be

○ 불어권 공동체

전화번호	+32 8 002 00 00
주소	Boulevard Léopold II, 44 108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federation-wallonie-bruxelles.be
비고	이메일: ministerium@dgov.be

○ 독일어권 공동체

전화번호	+32 8 759 63 00
주소	Gospertstrasse 1 4700 Eupen
홈페이지	http://www.dglive.be

○ 벨기에 연방의회

주소	Rue de Louvain 13,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s://www.belgium.be/fr/la_belgique/pouvoirs_publics/autorites_federales/parlement_federal

○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 기획원

전화번호	+32 2 507 73 11
주소	Rue Belliard - Belliardstraat, 14-18, 104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plan.be

○ 벨기에 재무성

전화번호	+32 2 572 57 57
주소	Boulevard du Roi Albert II 33 bte 22, 1030 Brussels
홈페이지	https://finances.belgium.be

○ 벨기에 중앙은행

전화번호	+32 2 221 21 11
주소	Boulevard de Berlaimont 3,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nbb.be
비고	이메일: centraledesbilans@nbb.be

○ 벨기에 통계청

전화번호	+32 2277 65 05
주소	North Gate - Boulevard du Roi Albert II, 16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statbel.fgov.be
비고	이메일: statbel@economie.fgov.be

○ 벨기에 연방무역청

전화번호	+32 2 206 35 22
주소	Rue Montoyer 3,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abh-ace.be
비고	이메일: secretariat@abh-ace.be

○ 벨기에 법무부

전화번호	+32 471 61 48 23
주소	Boulevard de Waterloo 115.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s://justice.belgium.be/fr

○ 벨기에 보건복지위생환경부

전화번호	+32 2 524 97 97
주소	Place Victor Horta 40 bte 10, 1060 Saint-Gilles
홈페이지	http://www.health.belgium.be

○ 벨기에 국방부

전화번호	+32 8003 3348
주소	Kwartier Koningin Elisabeth Eversestraat 1 – Blok 11 114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mil.be

○ 벨기에 내무부

전화번호	+32 2 500 20 65
주소	1 rue de Louvain,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s://ibz.be/fr
비고	이메일: info@ibz.fgov.be

○ 벨기에 외무부

전화번호	+32 2501 81 11
주소	Rue des Petits Carmes 27,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diplomatie.belgium.be
------	---

○ 벨기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mploi.belgique.be
비고	이메일: infos@emploi.belgique.be

○ 플란더스 지방 관광청

주소	Grasmarkt 61,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visitflanders.com

○ 브뤼셀 지방 의회

전화번호	+32 2549 62 04
주소	Rue du Lombard 69,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parlbruparl.irisnet.be

○ 플란더스 지방 의회

전화번호	+32 2 552 11 11
주소	Hertogsstraat 6, 1000 Brussel
홈페이지	http://www.vlaamsparlement.be
비고	이메일: algemeen@vlaamsparlement.be

○ 애노 지방 기관(Hainaut)

전화번호	+32 65 335 732
홈페이지	http://www.hainaut.be
비고	이메일: meetings.events@hainaut.be .

○ 리에주 지방 기관(Liege)

전화번호	+32 4279 32 00
주소	Haut Mar^e, 20. 4910 La Reid
홈페이지	http://www.provincedeliege.be

비고	이메일: serviceduconseil@provincedeliege.be
----	--

○ 나무르 지방 기관(Namur)

전화번호	+32 8177 51 82
주소	Chaussée de Charleroi 85 A 5000 Namur
홈페이지	http://www.province.namur.be

○ 룩셈부르크 지방 기관(Luxembourg)

전화번호	+32 63 212 711
주소	Place Leopold, 1 6700 Arlon
홈페이지	https://www.province.luxembourg.be/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브라반트 왈로니아 지방 기관(Brabant wallon)

전화번호	+32 10 23 60 11
주소	Place du Brabant wallon 1 1300 Wavre
홈페이지	http://www.brabantwallon.be
비고	이메일: info@brabantwallon.be

○ 브라반트 플란더스 지방 기관(Vlaams brabant)

전화번호	+32 1626 70 00
주소	Provincieplein 1 3010 Leuven
홈페이지	http://www.vlaamsbrabant.be
비고	이메일 : info@vlaams-brabant.be

○ 안트워프 지방 기관(Antwerpen)

전화번호	+32 3240 50 11
주소	Koningin Elisabethlei 22, 2018 Antwerpen
홈페이지	http://www.provincieantwerpen.be
비고	*한국에서 접속 시 링크 접속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림부르크 지방 기관(Limburg)

전화번호	+32 11 23 71 11
주소	niversiteitslaan 1 3500 Hasselt
홈페이지	http://www.limburg.be

◦ 동부 플란더스 지방 기관(Oost-Vlaanderen)

전화번호	+32 9 267 80 00
주소	Gouvernementstraat 1. 9000 Gent
홈페이지	http://www.oost-vlaanderen.be

◦ 서부 플란더스 지방 기관(West-Vlaanderen)

전화번호	+32 56 24 12 90
주소	Jan Van Eyckplein 2, 8000 Brugge
홈페이지	http://www.west-vlaanderen.be

◦ EU 집행위 공식 사이트

전화번호	+32 2 299 96 96
주소	Rue de la Loi 2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ec.europa.eu

◦ EU 이사회 공식 사이트

전화번호	+32 2281 61 11
주소	Rue de la Loi 175,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consilium.europa.eu/fr/home/

◦ RTBF(프랑스어권)

전화번호	+32 2737 39 39
주소	Boulevard Auguste Reyers 52, 1044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rtbf.be
비고	공영방송사

○ BRF(네덜란드어권)

전화번호	+32 8759 11 11
주소	Kehrweg 11, 4700 Eupen
홈페이지	http://www.brf.be
비고	공영방송사 이메일: t.wimmer@brf.be

○ Le Soir

전화번호	+32 2225 54 32
주소	Rue Royale 100,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soir.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a Libre

전화번호	+32 2744 44 44
주소	Rue des Francs 79, 104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alibre.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echo

전화번호	+32 2423 16 11
주소	Avenue du Port 86C,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cho.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Trends

전화번호	+32 7835 33 03
홈페이지	https://trends.levif.be/economie/?cookie_check=1621437901
비고	벨기에 경제주간지

○ L'avenir

전화번호	+32 8124 88 11
주소	Route de Hannut 38, 5004 Namur
홈페이지	http://www.lavenir.net
비고	벨기에 일간지

◦ RTL

전화번호	+32 2337 68 11
주소	Avenue Jacques Georgin, 2 1030 Schaerbeek
홈페이지	http://www.rtl.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De Standaard

전화번호	+32 2467 24 18
주소	Gossetlaan 30, 1702 Groot-Bijgaarden
홈페이지	http://www.destandaar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De Tijd

전화번호	+32 8005 51 50
주소	Avenue du Port 86C,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tij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Het Nieuwsblad

주소	Katwilgweg 2, 2050 Antwerpen
홈페이지	http://www.nieuwsblad.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이메일: pascal.weiss@nieuwsblad.be

◦ Belgieninfo.net

전화번호	+32 2627 18 21
------	----------------

주소	Rue Jacques Jordaens, 34 ,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belgieninfo.net
비고	벨기에 일간지

◦ Inter Press Service

전화번호	+32 2732 69 16
주소	Rue de la Linière 11, 106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ipsnews.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LE VIF

전화번호	+32 5126 61 11
주소	Rue de la Fusée 50, 113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levif.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 벨기에 기자 연합(AJP)

전화번호	+32 2777 08 60
주소	Maison des journalistes, Rue de la Senne 21, 1000 Bruxelles
홈페이지	http://www.ajp.be

◦ 왈로니아 지방 의회

주소	Rue Notre-Dame 1 5000 Namur
홈페이지	https://www.parlement-wallonie.be/
비고	이메일: courriel@parlement-wallonie.be

◦ The Brussels Time

홈페이지	https://www.brusselstimes.com/
비고	영문 일간지 이메일: info@brusselstimes.com

◦ VRT(플란더스 지방 언론사)

전화번호	+32 2 741 31 11
주소	Auguste Reyerslaan 52, 1043 Brusse
홈페이지	https://www.vrt.be/
비고	플란더스 지방 소식 전하는 언론사(라디오, 뉴스, TV)

◦ Het Laatste Nieuws(HLN)

주소	Mediaplein 1, 2018 Antwerpen
홈페이지	https://www.hln.be/
비고	벨기에 일간지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92 EUR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1개	7.36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8.41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7.33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0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55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1.5L	0.96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1.5L	2.440
8	의료	아스피린	30알	4.44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6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6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8.000
12	서비스	헤어컷(브뤼셀 중심가, 남성 기준)	1회	59.57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2024년 5월 13일 기준)	1L	1.840
14	서비스	의류수선비	기장	21.75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4.950
16	여가	담배	1갑	9.960
17	여가	소주	360ml	8.120
18	임금	최저임금(월별, Gross 기준)	법정최저	2197.640
19	학비	대학(비EU 학생 기준 최소)	연간	2714.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4.500
21	식품	쌀	10kg	55.370
22	식품	식빵	0.5kg	2.240
23	식품	고기	1kg	17.190
24	식품	계란	6개	5.090
25	식품	우유	1L	0.960

26	식품	식용유(해바라기 씨유)	1L	4.33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380
28	주거	수도세	m ³	3.040
29	주거	가스비	m ³	1.0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23.9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54.350
32	여가	맥주	330ml	1.580
33	서비스	디젤	1L	1.96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1.41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월	32.62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32.600
37	서비스	TV 수신료(2018년 전 지역 폐지되어 무료)	1개월	0.0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4.99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블라우스1벌	6.51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0.000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이다.

환전방법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현금거래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 지점이 많아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 올 것을 권한다. 현금 환전 시에는 환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브뤼셀 시내에서는 그랑플라스 주변과 북역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5~10% 정도의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이 외,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있는 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 유럽 체크 카드만 받는 경우가 있다.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 카드이며 대부분 비밀번호 입력 방식인 관계로 비밀번호 암기가 필수지만 애플페이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식이 가능한 곳도 많아 지는 추세이다. 다만, 일부 식당 및 상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곳이 간혹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소지해 두는 것을 권한다. 한편, 벨기에 체류 기간에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Card Stop(+32 078 170 170)에 즉시 연락해 카드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또는 한국의 카드 회사의 긴급 해외 연락처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통해 분실한 카드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서 타사 카드까지 분실 등록이 가능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벨기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뛰어나 출장, 여행 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브뤼셀에는 지하철(메트로), 트램, 버스 등이 있으며, 주요 도시마다 버스나 트램을 운행하고 있다. 다만, 기차 및 시내 대중교통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예상 이동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인 아침 9시 전후, 퇴근 시간인 5시 전후로 주요 고속 도로 및 시내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시간대에는 택시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

버스

버스 및 트램 회사는 크게 STIB(프랑스어 권), De Lijn(네덜란드어 권)이 있는데, 브뤼셀에서는 STIB와 De Lijn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티켓은 주로 지하철역이나 주요 트램 정거장에서 자판기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STIB 일반 1회권 비용은 2.40 유로, 10회권 16.80유로에 구매 가능하며 10회권과 같이 여러 회차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지하철역 매장에서 구매 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De Lijn 사의 1회권은 2.50유로, 10회권은 17유로이며 사용 후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하다. STIB와 De Lijn 모두 10회권 구매 시 개별 티켓 구매 시보다 티켓 당 가격이 더 저렴하며, 여러 명이 하나의 10회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택시

택시는 공항,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 예약 이용 시 최소 요금

- 픽업 요금: € 1.50
- 주행 시간에 따라 분(minute)당 요금: € 0.40
- 주행 거리에 따라 1km당 요금: € 1.50
- 최소 이용 요금: € 8.00

o 브뤼셀 택시 회사

- Taxis Verts(전화번호: +32 (0)2 349 49 49, 홈페이지: taxisverts.be)
- Autolux(전화번호: +32 (0)2 512 31 23, 홈페이지: www.taxisautolux.be)
- Taxis Bleus(전화번호: +32 (0)2 268 00 00, 홈페이지: www.taxisbleus.be)
- Taxi Victor Cab(전화번호: +32 (0)2 425 25 25, 홈페이지: www.victorcab.be)

일반 택시 이외에도 우버 택시 또는 볼트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벨기에 우버의 경우, 일반 자가용 차량인 우버 엑스(Uber X), 고급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는 우버 블랙(Uber Black), 4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우버 SUV(Uber Van)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최근 반려동물과 같이 탈 수 있는 Uber Pet, 우크라이나에 성금을 지원하는 Uber for Ukraine, 아이와 동반 탑승이 가능한 UberXChild 등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졌다. 우버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Visa, 마스터 카드 등)를 등록해야 한다. 벨기에 인터넷 속도가 한국보다 느릴 수 있으므로, 도착 후 우버 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출국 전 국내에서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볼트, 라임, 도트 등 앱을 설치하면 전동 킥보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나 브뤼셀 내에서는 전용 도로가 없는 곳이 많고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다. 통신

핸드폰

벨기에 출장 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로밍 서비스: 국내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한다. 요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단기 출장에 적합하다.
- 유심카드 이용: 벨기에 입국 전 국내에서 미리 유심카드를 구입하거나, 벨기에 도착 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본인의 단말기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 e-SIM 이용: 최근 출시된 e-SIM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입 후 단말기에서 유심 설정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간편하다. 단, 휴대폰 기종에 따라 e-SIM 지원 가능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
- 현지 통신사 요금제 이용: 장기체류의 경우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약정제 또는 월정액 요금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벨기에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Proximus, Base, Orang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비용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나, 보통 20~30유로의 요금제를 이용하면 10~15GB의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다. 벨기에 통신사별 요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무선통신업체 이외에도 Zunny, Voo 등 저가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https://www.spiroo.be/comparatif.php>

와이파이의 경우, 벨기에 시내에 있는 카페나 상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발신 범위가 좁고 속도가 느려 이용이 불편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한국 출국 전에 미리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한 후 출장을 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켓 와이파이기는 1개의 기기로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하고 노트북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 관광명소

○ 브뤼셀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u Musee 9,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11: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브뤼셀 왕립미술관은 과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대신해 1801년 분관으로 지어졌다가 1831년 벨기에 독립 이후 벨기에 소유가 되었다. 총 6개 관에 걸쳐 고전 미술부터 현대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약 2만 점을 전시하고 있다.
비고	전화: +32 2 508 32 11 홈페이지: www.fine-arts-museum.be

○ 그랑플라스(Grand-Place)

도시명	브뤼셀
주소	Grand-Place de Bruxelles,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p>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브뤼셀의 상징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큰 광장'이란 뜻의 그랑 플라스는 13세기의 대형 시장이 생기면서 발달했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랑플라스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칭했으며, 나폴레옹 쿠데타 당시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12세기부터 벨기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 광장은 가로 70m, 세로 110m 크기에 고딕,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조 건물과 광장의 모습은 17세기의 상공업 길드 시기에 갖춰진 것이다.</p> <p>광장을 둘러싸고 사방의 건물들(시청, 길드 하우스, 왕궁과 여러 개의 주요 관청)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브뤼셀의 모습을 보여준다.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골목을 돌아보면 브뤼셀 거리를 빠짐없이 볼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조명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조명 쇼가 펼쳐져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p>
비고	홈페이지: www.brussels.be/grand-place-brussels

○ 아토미움(Atomi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Place de l'Atomium, 1020 Brussels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 10~18시 (매표 마감 및 입장 마감시간 : 17:30)

<p>명소소개</p>	<p>벨기에의 주요 랜드마크인 아토미움은 1958년 벨기에 브뤼셀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철의 원자구조를 165억 배로 확대한 형태로 건축됐다. 총 높이는 102m이고 지름 18m의 9개의 구(求)체가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12개의 모서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띠고 있으며 정육면체 꼭짓점에 있는 8개의 구가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통해 정육면체 가운데에 있는 구를 연결하고 있다.</p> <p>이 중 일반인에게 개장된 5개의 구(求)에는 아토미움 역사와 배경에 관한 전시를 하는 상설전시관과 과학테마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단기 전시관이 있다. 고속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가장 높은 구에는 브뤼셀 시내 및 외곽을 360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도 갖춰져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다.</p>
<p>비고</p>	<p>전화번호: +32 2 475 47 75 홈페이지: www.atomium.be</p>

○ 오줌싸개 소년 동상(Manneken Pis)

<p>도시명</p>	<p>브뤼셀</p>
<p>주소</p>	<p>Jeanneke-Pis, Impasse de la Fid&eacute;lit&eacute;: 10-12, 1000 Bruxelles</p>
<p>운영시간</p>	<p>상시</p>
<p>명소소개</p>	<p>오줌싸개소년 동상은 1619년에 조각가 제롬 뒤케누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랑플라스와 함께 브뤼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 동상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분수대 역할을 해왔으며, 17세기 말 루이 14세의 브뤼셀 포격에서 살아남은 이후로 브뤼셀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처음 보고 느낀 이미지는 초소형 크기의 동상으로부터 오는 실망과 초라함이지만, 이 동상은 브뤼셀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루이 15세가 동상의 약탈을 사과하는 의미로 프랑스 후작의 의상을 입혀서 돌려보내었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현재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국민들이 방문할 때 이 소년의 의상을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특별한 날마다 다양한 옷을 선보이기도 하는 이 오줌싸개 소년 동상은 약 900여 벌의 다양한 의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한복도 있다. 오줌싸개 소년의 의상 컬렉션은 그랑플라스에 위치한 왕의 집(Maison du Roi)안의 브뤼셀 도시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쇼핑하다 보면 반 이상이 오줌싸개 동상으로 만든 병따개, 컵, 숟가락, 열쇠 고리 등의 상품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p>
<p>비고</p>	<p>홈페이지: www.brussels.be/manneken-pis</p>

○ 예술의 언덕 (Mont des Arts)

<p>도시명</p>	<p>브뤼셀</p>
<p>주소</p>	<p>1000 Brussels</p>
<p>운영시간</p>	<p>상시</p>
<p>명소소개</p>	<p>예술의 언덕이란 뜻을 지닌 이 정원은 브뤼셀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술의 언덕 주변은 한때 인구가 밀집한 거주 지역이었으나, 19세기 후반 레오폴드 2세 왕이 이 지역을 예술의 언덕으로 탈바꿈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적인 건축 건물과 대형 오픈 광장들이 옛날의 낡은 건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의 예술의 언덕은 국제회의장(Palais des Congres)과 왕립도서관(Bibliothèque Royal de Belgique) 사이에 펼쳐진 공원과, 곳곳에 나무와 분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주변에는 10여 개가 넘는 대형 갤러리와 박물관이 있어 브뤼셀의 떠오르는 문화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p>

○ 악기 박물관 (Musical Instrument Muse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Montagne de la Cour 2,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9:30~17:00 주말 및 공휴일: 10:00~17:00 (매표 마감 시간: 16: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벨기에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으로 지어진 이 악기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아온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약 7,000여의 악기종류와 악보들이 총 4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입장할 때 나눠주는 이어폰을 끼고 악기 옆에 서면 악기의 연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다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건물의 마지막 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르누보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내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8유로, 학생 6유로, 어린이는 2유로이다.
비고	홈페이지: http://www.mim.be/

○ 생 위베르 갤러리 & 부세 거리 (Galeries royales Saint-Hubert & Rue des Bouchers)

도시명	브뤼셀
주소	1000 Brussels
운영시간	상시
명소소개	생 위베르 갤러리는 유럽 최초로 1847년에 문을 연 쇼핑가로 과거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었다. 그랑플라스에서 북동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유리과 곡선형태의 철골 구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장이 인상적이다. 이 쇼핑 아케이드 안에는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다양한 초콜릿 상점들이 모여 있어 브랜드 별로 초콜릿을 맛보거나 선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곳이다. 이 쇼핑가를 벗어나면 과거에는 경육점의 거리였지만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부세거리가 나온다. 브뤼셀에서 유일하게 호객꾼이 있는 식당가이며, 벨기에의 명물인 훙합 요리가 이곳 식당가의 대표적 메뉴라 할 수 있다.

○ 마그리트 미술관(Magritte museum)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a Régence 3, 1000 Brussels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11: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무

<p>명소소개</p>	<p>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긴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로 1898년 11월 21일에 벨기에 레신에서 태어나 1967년 8월 15일에 브뤼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 화가이나,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 자신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속에 배치하는 방식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사용하였다. 동 기법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한다.</p> <p>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에서의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대중매체의 많은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영화 '매트릭스'는 마그리트의《겨울비(Golconde)》(1953)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본의 만화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그리트의 작품인《피레네의 성(Le chateau des Pyrenees)》(1959)과 《올마이어의 성(Almayer's Folly)》(1951)에서 모티브를 얻었다.</p>
<p>비고</p>	<p>홈페이지: http://www.musee-magritte-museum.be</p>

○ 브뤼헤(Brugge)

<p>도시명</p>	<p>브뤼헤</p>
<p>주소</p>	<p>8000 Brugge</p>
<p>운영시간</p>	<p>상시</p>
<p>명소소개</p>	<p>도심을 타원형으로 감싸 흐르는 수로와 50여 개의 다리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브뤼헤는 벨기에에서의 일정이 1박 2일 이상인 여행자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곳이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브뤼헤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p> <p>브뤼헤는 9~13세기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운하가 발달된 무역지구로 자리 잡았고, 13~15세기에는 북서유럽의 경제적 수도였다. 16세기까지는 양조업의 대표지로 발달해 현재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세 유럽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그마한 도시 브뤼헤는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자전거로 즐길 수도 있고, 아기자기한 운하 사이를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 있다.</p>
<p>비고</p>	<p>홈페이지: bezoekers.brugge.be/en</p>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마. 식당

- 현지식당

○ 라 말미톤(La Marmiton)

<p>도시명</p>	<p>브뤼셀</p>
<p>전화번호</p>	<p>02 511 79 10</p>
<p>주소</p>	<p>Galerie de la Reine 38, Rue des Bouchers 43, 1000 Brussels</p>
<p>가격</p>	<p>21~54유로(트립어드바이저 기준)</p>
<p>영업시간</p>	<p>월요일~금요일:12:00~14:30, 18:00~22:30 주말: 12:00~22:30</p>

소개	벨기에식 혼합요리 및 플란더스 지역 전통 쇠고기 스투인 스토프블레이스(Stofvlees)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브뤼셀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음
----	---

○ 레흐 뒤 땡 (L'air du temps)

도시명	Éghezée
전화번호	081 81 30 48
주소	Rue de la Croix Monet 2, 5310 Éghezée
가격	메뉴 170~230유로 / 인
영업시간	수요일~일요일: 12:00~13~30, 19:00시~20:30 토요일: 19:00시~20:3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소개	한국계 입양 미술랭 스타셰프가 운영하는 오너식당으로, 한국과 서양의 퓨전식 요리를 선보임 미술랭 투스타 식당
비고	홈페이지: http://airdutemps.be/

○ 웨레옹(Chez Leon)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1 14 15
주소	Rue des Bouchers 18, 1000 Brussel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 12:00~23:00 금요일~토요일: 12:00~23: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100년이 넘는 벨기에 전통 혼합 요리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www.chezleon.be/

○ 브라세리 드 로메강(Brasserie de l'Ommegang)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1 82 44
주소	Grand-Place 9, 1000 Brussel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일요일: 11:00~23: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그랑플라스 위치, 벨기에 음식 레스토랑
----	-----------------------

○ 르 페로켓(Le perroque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2 99 22
주소	Rue Watteuu 31, 1000 Brussels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화~일요일: 12:00~23: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소개	가벼운 식사, 스낵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Leperroquetbruxelles/

○ 메종 단도이(Maison Dandoy)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40 27 02
주소	Rue au Beurre 31, 1000 Brussels
가격	5~2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일요일: 9:30~22: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벨기에 전통 과자인 스페쿨로스, 와플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s://maisondandoy.com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한국식당

○ 한국관(Korea Restaurant)

도시명	Tervuren
전화번호	02 308 88 92
주소	Leuvensesteenweg 147a, 3080 Tervuren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 18:0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근교 Tervuren에 위치한 식당으로, 저녁에만 운영하며 미리 예약을 하는 편이 좋다.
----	---

○ 서울식당(Seoul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13 17 25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14, 1050 Brussels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월~화요일: 19:00~22:00 수~토요일: 12:00~14:00, 19:00~22:30
휴무일	매주 일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시내 Louise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단체석 마련이 가능하다.

○ 하나식당(Hana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502 5241
주소	Rue Saint Boniface 21, 1050 Brussels
가격	15~25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12:00~14:00, 18:3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휴무
소개	배달 주문 가능

○ 마루(Maru Restaurant)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346 11 11
주소	Chaussee de Waterloo 510, 1050 Brussels
가격	30~50유로
영업시간	일~목요일 : 12:00~14:30분, 19:00~22:30
휴무일	월요일, 화요일 휴무
소개	브뤼셀 시내에 자리한 현대적인 분위기의 한식당

○ 밥앤닥(Bap and Dak)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361 56 59
주소	Rue Lesbroussart 55, 1050 Ixelles
가격	15~2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 18:30분~22:00 금요일~일요일: 12시~14:30, 18:30~22:00
소개	비빔밥, 김밥, 도시락 등 가벼운 음식류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apanddak.be/menu

○ 이야기 (IYAGI)

도시명	브뤼셀
전화번호	02 647 58 47
주소	Rue Longue Vie 44-22, 1050 Ixelles, Belgium
가격	11~15유로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 12:00~14:30, 18:30~21: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테이크아웃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iiiyagiii/

○ 강남(Gangnam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와브르
전화번호	01 088 80 17
주소	Rue Provinciale 244, 1301 Wavre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화요일~목요일 : 11:30분~14:30, 18:00~22:00 금요일~토요일 : 12:00~14:30, 18:00~22:30 일요일 : 12:00~14:30, 18:00~21:30
비고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angnamkoreanrestaurant/

○ 헤이, 주(Hey, Joo)

도시명	겐트
주소	Oudburg 18, 9000 Gent

가격	4~18유로
영업시간	수요일~목요일 17:00~21:00 주말 12:00~14:00, 17:00~21: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휴무
소개	대학 도시 겐트의 레스토랑 거리에 있는 한식당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아르구스 호텔(ARGUS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Capitaine Crespel 6,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514 07 70
홈페이지	http://www.argus-hotel-brussels.com
숙박료	싱글: 약 130유로(조식 포함) 더블: 약 150유로(조식 포함)
소개	브뤼셀 시내 Porte de Namur(Naamsport) 전철역 근처에 있는 호텔

○ 힐튼 호텔(HILTON Hotel (Grandplace))

도시명	브뤼셀
주소	Carrefour de l'Europe 3,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48 42 11
홈페이지	http://www.hilton.com
숙박료	싱글: 약 120~350유로 더블: 약 160~400유로
소개	브뤼셀 중앙역 Bruxelles-Central(Brussel-Centraal)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

○ 노보텔 호텔(NOVOTEL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a Vierge Noire 32,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620 04 28
홈페이지	http://www.novotel.com
숙박료	싱글: 약 175유로 더블: 약 184유로 조식 15유로 추가
소개	브뤼셀 시내 De Brouckère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

○ 크라운 호텔(Crowne Plaza)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Gineste 3, 1210 Brussels
전화번호	02 203 6200
숙박료	약 130유로
소개	브뤼셀 호지에(Rogier) 역에 위치한 호텔
비고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gb/en/brussels/brube/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BE-_-BRUBE

○ 이비스 호텔(IBIS Ho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Angleterre 2-20, 1060 Brussels
전화번호	02 620 0425
숙박료	약 70~80유로
소개	브뤼셀 미디(Midi)역에 위치한 호텔
비고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3152/index.ko.shtml

○ 더호텔(The Hotel Brussels)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de Waterloo 38,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04 11 11
숙박료	싱글: 약 180 ~ 470유로 더블: 약 220 ~ 500유로

○ 톤 호텔 (Thon Hotel Brussels Airport)

도시명	브뤼셀
주소	Berkenlaan 4, 1831 Diegem
전화번호	02 721 77 77
숙박료	일반: 약 140유로
비고	홈페이지: www.thonhotels.com/hotels/belgium/brussels/thon-hotel-brussels-airport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게스트하우스

o 호스텔 드 블라우풋 (Hostel De Blauwput (Leuven))

도시명	루벤
전화번호	01 663 90 62
홈페이지	http://www.jeugdherbergen.be
숙박료	29~30유로

o 마이닝거 브뤼셀 시티 센터 (Meininger Brussels City Center)

도시명	브뤼셀
주소	Quai du Hainaut 33, 1080 Molenbeek-Saint-Jean
전화번호	02 5881 474
홈페이지	http://www.meininger-hotels.com
숙박료	약 100유로

o 슬립웰 유스호스텔 (Sleep Well Youth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u Damier 23,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8 50 50
홈페이지	http://www.sleepwell.be
숙박료	31~60유로

o 투고포 퀄리티 호스텔 (2GO4 Quality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Emile Jacqmain 99, 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219 30 19
홈페이지	http://www.2go4.be
숙박료	약 50유로

○ 브뤼셀 파이스 시티센터 호스텔 (Brxxl 5 City Center Hostel)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Woeringen 51000 Bruxelles
전화번호	02 502 37 100
홈페이지	http://www.brxxl5.com/
숙박료	약 90유로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사. 치안

치안상황

벨기에의 전반적 치안 상황은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은 브뤼셀 중심지의 경우 단순 절도 및 도난 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등에서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날치기, 소매치기,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양인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지갑과 다른 가방에 넣고 하루에 쓸 돈만 따로 준비해, 만일에 있을 도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누군가 길에서 말을 건다면 모른다고 하고 속히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관광객이 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릴 때 한 명이 길을 묻는 척 하면서 주의를 돌린 다음 공범이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은 대표적인 소매치기 수법이다. 농담조로 말을 붙이거나 손으로 얼굴과 몸을 톡톡 치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 일행이 소매치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경찰관 복장을 입은 사기꾼 일당이 2~3인조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약 소유 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져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양한 소매치기 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가방을 맡겨서는 안 되며, 침착하게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또한, 호텔에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 할 때, 귀중품을 항상 몸에 소지하는 등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자동차 단순 접촉 사고 시 우선 비상등 설치 등 안전조치 시행하고, 당사자 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를 소지하고, 보험회사에 송부한다.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불리한 입장으로 몰릴 때는 경찰(전화 101)의 도움을 요청한다.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 외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된 긴급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 긴급 출동 서비스 회사

- The Royal Automobile Club de Belgique
주소: Rue d'Arlon 53, 1040 Brussels

전화번호: 02 287 09 11

고장 서비스 전화 : 07 815 20 00

- Vlaamse Automobilistenbond, VTB/VAB

주소: Pastoor Coplaan 100-2070 Zwijndrecht

전화 : 03 253 61 11

고장 서비스 전화: 070 22 40 30

- Touring Club de Belgique

주소: Rue de la Loi 44, 1040 Brussels

전화 : 02 233 22 02

고장 서비스 전화: 07 034 47 77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번호 100이나 112번으로 전화를 걸면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 준다(화재 신고 역시 동일 번호).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진 형태의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여권 분실 시, 반드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에서 단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발급 신청서(대사관 비치)
- 경찰 분실 신고서(여권 분실·도난 시 관할 지역 경찰에 신고한 후 교부되는 분실증명서)
- 여권 분실 신고서(대사관 비치)
- 사진 2매(혹은 대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 가능)
- 수수료

지갑 분실로 경비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해외 신속 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 국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긴급경비를 주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즉시 조달받을 수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00
- 범죄 신고: 101
- 의료: 구급차 서비스 100
- 교통사고 및 위급사항 발생 시: 112(EU 역내 통용 번호)
- 대사관 연락처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32 (0)2-675-5777
긴급연락처(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32 (0)476-45-75-06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벨기에 내 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검색, 주거 희망 지역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검색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주거 희망 지역의 주택 여부, 주택의 형태 및 기본적인 조건과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벨기에에는 다양한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데, 프랜차이즈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양한 매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영어에 능숙하므로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를 모를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벨기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서 미리 벨기에에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더라도 막상 도착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벨기에 도착 후 바로 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도착 며칠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 면접 수준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 조건들이 임대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 임대자는 계약 전에 세입자를 까다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정 상황, 근로계약(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 신분(미혼, 기혼 여부)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구하므로 벨기에에서 집을 구하기는 한국보다 더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에는 한국과 같은 전세 제도는 없으며 월세와 시설 보증금 제도로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인은 물가 상승률이 고려된 정부 지표 내에서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료 이외의 비공식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적용 중인 세입자 보호정책은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 세입 계약 기간은 3년이나 최대 9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연장을 하려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본 세입 계약 기간인 3년 이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계약 해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년 이전에 이사를 가면 3개월 치 월세, 2년 이전은 2개월 치 월세, 3년 이전은 1개월 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3년 이후에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 해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 기간과 연장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한편 월세와 함께 운영되는 시설 보증금 제도(Garantie locative)의 경우, 계약 종료 후에 집을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 전과 퇴거 시에 집의 상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증금 제도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거주할 '집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를 '에타 데 리유(Etat des lieux)'라고 부른다.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설 검증 전문가(Expert)가 임대인과 집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은 집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3 bed 아파트 경우) 155~400 유로 정도이다.

보통 입주 전 벽지 등 집 내부가 잘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이사를 나와야 한다. 임대인은 작은 생활 흔적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하거나 시설 보증금에서 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시설 보증금은 2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며, 이를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보증금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다른 한쪽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은 집 계약 종료 후, 임대했던 집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은행에 동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된 해당 보증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가진다.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 벨기에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로 어느 정도 살아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구매 시에는 집 출생 신고서, 전력량, 전기 검사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집 출생 신고서는 집의 설계도면, 설립 연도 등 세부 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이며 CPE(Certificat de performance energetique)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명서로 일반적으로 PEB(Performance Énergétique des Bâtiments)로 불린다. PEB는 A~G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A~G 등급으로 나뉘는데,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고 G로 갈수록 효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전기 검사증(l'installation électrique)은 정기적인 전기 검사를 통해 내부 전기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서류이다.

2023년 기준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에너지 효율이 낮을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보수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에너지 효율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기준 벨기에 아파트 및 주택 매매가는 코로나 이후 많이 올랐다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추세지만, 현재는 건물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게 나는 편이다. 또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월세 임대인 경우 브뤼셀에서 방 3개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평균 1500~2000유로 수준이다.

전화

집에 전화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동통신 회사에 접촉해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또는 이전 세입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이다. 최근 유선 전화기만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인터넷, TV 등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식으로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로는 Proximus, Orange, Scarlet 등으로 시내 곳곳에 있는 서비스 지점 또는 업체별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브뤼셀 지하철역, 주요 관광지 등 공공장소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o 벨기에 주요 통신사 리스트(해외 전용 URL)
 - Proximus: www.proximus.be
 - Base: www.base.be
 - Mobile Vikings: www.mobilevikings.be
 - Orange: www.orange.be
 - Scarlet: www.scarlet.be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1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수

벨기에 수도물은 품질이 좋은 편으로 수도물을 마시는 현지인들이 많다. 다만, 수도물에 석회가 함유된 지역이 많아 불편한 경우 필터가 장착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면 된다. Brita라는 간단한 정수필터를 이용하여 수도물을 정수하여 음용하는 방법도 있다.

SPA, Chaudfontaine 등이 벨기에의 대표적인 생수 브랜드이며, 슈퍼마켓 자체 PB(Private Brand) 제품들도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벨기에 음식점 및 카페 이용 시 한국과는 달리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생수를 별도로 주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벨기에 체류 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렌터카, 리스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차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회사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전에 각 회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가격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수동 차량이 일반적이고 오토매틱 차량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토매틱 차량 구입 시 수동 차량보다 1,000~2,500유로 정도 더 비싼 편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및 에어컨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의 경우, 여러 완성차 회사의 사이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 광고를 보고 차주나 중개인 (dealer, garage)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은 후자 쪽이 20~30% 정도 비싼 편이며,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 점검(Controle Technique)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차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차체 등록증과 차량 정기 점검에 통과된 차량 번호판 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3년 기준 신차를 구매할 경우 대기 소요일이 매우 길어 중고차 수요의 증가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니 급한 것이 아니라면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일 경우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유리하나, 장기간 차를 빌리고 싶은 경우 리스(lease)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특히, 임시 거주자에게 있어 자동차 구입은 여러모로 쉽지 않지만, 리스카 이용은 행정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되파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벨기에 내 모든 자동차는 첫 등록 이후 4년 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차량 정기 점검(Controle technique)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을 압수 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벨기에에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측 통행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에서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단, 로터리는 예외). 그리고 트램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또한, 뒤쪽 좌석을 포함한 차량 내 모든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시내 제한 속도는 50km/h, 고속도로는 120km/h이다. 또한, 학교 근처와 같은 특수 지역은 30km/h이다. 주차장 이용 시 시내에 있는 Interparking, Q-Park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가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영수증을 차량에 올려놓아야 한다. 요금은 시간당 2.5 유로 정도다. 운전 시에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증명서, 보험증, 신분증, 운전 면허증 등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 주요 자동차 회사 사이트(해외 전용 URL)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www.hyundai.be
-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www.kia.com/be
- BMW 홈페이지: www.bmw.be
- Volkswagen 홈페이지: www.vw.be

○ 중고차 구매 참고 사이트(해외 전용 URL)

- Nearly New Car 홈페이지: www.nnc.be
- Cardoen 홈페이지: www.cardoen.be
- My Way 홈페이지: www.myway.be

○ 차량 수리 참고 사이트(해외 전용 URL)

- Monsieur Pneus: www.monsieurpneus.be
- Pneu Vanhamme: www.pneuvanhamme.be

차량가격

차량 가격은 차종별 매우 상이하지만, 현대차 전기차 기종인 IONIQ 6 모델의 경우 50,499유로부터 가격이 책정되며, 투싼 하이브리드의 경우 37,699부터 가격이 책정된다. (2023년 5월 기준)

운전면허 취득

벨기에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국으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 벨기에에서도 6개월간 운전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국제 면허증 필요 없이 영문 한국 운전 면허증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한국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번역공증본 또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서류준비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양국 당국의 협조로 다소 간소화되었다. 다만,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을 벨기에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방문, 운전면허 인증서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인증서와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 관할 구청인 꼬문을 방문, 교환신청을 하면 약 1주일 내로 벨기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만약 벨기에에서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벨기에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은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로, 네어권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어로 치러진다. 영어 통역을 거쳐 시험을 보는 날이 1년에 3~4번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지역 면허 시험장에 문의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벨기에 주요 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현지 진출 한국 은행은 없다. 은행 수수료는 이용 카드(직불, 신용카드)에 따라 연간 40~100 유로로 다소 상이한 편이니 은행별로 제공 서비스를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 국내 주요 은행

- BNP Paribas Fortis: 프랑스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현지 법인들이 많이 이용
- KBC(CBC): 북부 플란더스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벨기에 은행이며, 왈로니아 지역과 브뤼셀 지역의 정식 명칭은 CBC
- ING: 네덜란드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Belfius: 벨기에 은행으로 벨기에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 은행별 연락처

- BNP Paribas Fortis: 전화번호: 02 762 20 00, 홈페이지: www.bnpparibas.be
- KBC: 전화번호: 078 152 154, 홈페이지: www.kbc.be
- ING: 전화번호: 02 547 21 11, 홈페이지: www.ing.be
- Belfius: 전화번호: 02 222 12 01, 홈페이지: www.belfius.be

○ 은행별 수수료 비교 사이트: <https://www.comparatif-compte-bancaire.be/les-comptes-non-connectes>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 약속 시각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서류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설명 뒤에 바로 계좌를 열어준다. 만일에 대비해 출국 전 비자 발급 때 요구했던 서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가

저가는 것이 좋다. 계좌와 함께 현금인출 카드도 받게 되는데, 카드는 보통 1주일 뒤에 우편물로 배달된다.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벨기에 내 거주 중인 집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계약서가 없으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류증이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면 되지만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 신고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체류증 발급 시 은행에 다시 재방문해야 한다. 만일 체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은행 구비 서류: 집 계약서, 체류증(혹은 거주 신고 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벨기에 내 대표적인 은행으로 BNP Paribas Fortis, KBC, ING, Belfius 등이 있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거래하기 편한 곳에 약속을 잡고 계좌를 열면 된다. 방문 전에는 점심시간이 있는지 등의 업무 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9~16시까지가 업무시간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ISB)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Preschool(만 2.5~3세), Pre-kindergarten(만 4세), Kindergarten(만 5세), Grades 1~12(만 6~17세)
학비	21,650~46,725유로(교육 과정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https://www.isb.be/
비고	미국계 국제학교(중등교육기관) o 주소 : Kattenberg 19, Watermael-Boitsfort, 1170 Brussels Region o 입학 문의(Admission) - 대표번호 : +32 (0)2 661 42 11 - 담당자 번호: +32 (0)2 661 4369 - 이메일 : admissions@isb.be

o The British School of Brussels(BSB)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Kindergarten, Grades 1~13
학비	19,415~44,015로(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https://www.britishschool.be/
비고	영국계 국제학교(중등교육기관) o 주소 : Leuvensesteenweg 19, 3080 Tervuren Belgium o 입학 문의 (Admission) - 전화번호 : +32 (0)2 766 04 30 - 이메일 : admissions@britishschool.be

○ St. John

도시명	워털루
커리큘럼	Nursery, Kindergarten, Primary, Grades 1~12
학비	13,200~41,565유로(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	http://www.europeanschool.be/
비고	미국계 국제학교(중등교육기관) ○ 주소 : Dreve Richelle 146, 1410 Waterloo ○ 입학 문의 (Admission) - 전화번호 : +32 (0)2 352 06 10 - 이메일 : enquiries@stjohns.be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

- 현지학교

○ 앤트워프 대학교

도시명	앤트워프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홈페이지	https://www.uantwerpen.be/

○ 브뤼셀 자유대학 ULB(프랑스어권)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홈페이지	https://www.ulb.be/

○ 겐트 대학교 UGent

도시명	겐트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홈페이지	https://www.ugent.be/en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송도에 국제 캠퍼스를 운영

○ 루벤 대학교 KU Leuven

도시명	루벤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홈페이지	https://www.kuleuven.be/kuleuven/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브뤼셀 자유대학 VUB(네덜란드어권)

도시명	브뤼셀
커리큘럼	종합대학교
학비	학과마다 상이
홈페이지	https://www.vub.be/
비고	연간 학비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자료원 : 학교별 홈페이지 >

마. 병원

○ Hôpital Delta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du Triomphe, 201 1160 Brussels
전화번호	일반 문의: 02 434 81 11 응급 서비스: 02 434 88 00
진료과목	델타 병원(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https://chirec.be/en/

○ UZ Gent

도시명	겐트
주소	C. Heymanslaan 10, 9000 Gent
전화번호	일반 문의: 09 332 21 11 응급 서비스: 09 332 50 24
진료과목	겐트대학교 병원(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www.uzgent.be
----	--

◦ UZ Leuven

도시명	루벤
주소	Herestraat 49, 3000 Leuven
전화번호	일반 문의: 016 33 22 11 응급 서비스: 016 34 39 00
진료과목	루벤대학교 병원(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uzleuven.be

◦ Centre Hospitalier Unversitaire St. Pierre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aux Laines 105, 1000 Brussels
전화번호	02 535 31 11
진료과목	생 피에르 대학교 병원(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stpierre-bru.be

◦ Hopital Universitaire Brugmann

도시명	브뤼셀
주소	Place A.Van Gehuchten 4, 1020 Brussels
전화번호	02 477 21 11
진료과목	브뤼흐만 대학교(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chu-brugmann.be

◦ Hopitaux Iris Sud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Jean Paquot 63, 1050 Ixelles
전화번호	02 641 4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his-izz.be/fr/hopitaux-iris-sud/infos-pratiques-et-contact/etterbeek-ixelles_3

◦ Clinique de L'Europe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de Linthout 150, 1040 Brussels
전화번호	02 614 30 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cliniquesdeleurope.be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Maasmechelen Village

도시명	메스메헬렌(Maasmechelen)
주소	Zetellaan 100, 3630 Maasmechelen
홈페이지	https://www.tbvsc.com/maasmechelen-village/en
비고	벨기에 유일한 아울렛 단지

o Gallerie INNO

도시명	벨기에 전역
주소	Avenue Louise 12 1050 Brussels(브뤼셀 지점)
홈페이지	https://www.inno.be/fr-be/
비고	벨기에 백화점

o City 2

도시명	브뤼셀
주소	Rue Neuve 123 - bte 402m 1000 Brussels
홈페이지	http://www.city2.be
비고	실내 대형 쇼핑몰

o Shopping Gent Zuid

도시명	겐트
-----	----

주소	Woodrow Wilsonplein 4, 9000 Gent
홈페이지	https://gentzuid.be/
비고	겐트 시내에 위치한 쇼핑센터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 식품점

o 아시아앤모어(Asia & More)

도시명	루벤
주소	Aarschotsesteenweg 92, 3012 Leuven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식품 판매
비고	영업시간 일요일~월요일:13:00~19:00 화요일~토요일: 9:00~19:00

o Marche de Midi

도시명	브뤼셀
주소	Avenue Fonsny, 1000 Brussels
취급 식료품	식품류/의류/잡화
비고	영업시간 6:00~14:00 (일요 시장)

o 신라식품점

도시명	브뤼셀
주소	Chaussée de Wavre 1676 1160 Auderghem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자재 취급 슈퍼마켓
비고	영업시간 9:00~19:00

o Rob The Gourmets' Marke

도시명	브뤼셀
주소	Boulevard de la Woluwe 28, 1150 Woluwe-Saint-Pierr
취급 식료품	식품(정육점, 베이커리, 와인 등 고급식자재 전문판매점)
비고	홈페이지 https://www.rob-brussels.be/

- 기타 편의시설

o 키네폴리스

도시명	벨기에 전역
홈페이지	https://kinopolis.be/
소개	벨기에 체인 영화관

o UGC

도시명	벨기에 전역
홈페이지	https://www.ugc.be/
소개	벨기에 체인 영화관

o Pairi Daiza

도시명	브뤼헤르뜨
주소	Domaine de Cambron B-7940 Brugelette
홈페이지	https://www.pairidaiza.eu/fr
소개	벨기에 최대 규모 동물원

o Therme Spa

도시명	스파
주소	Les Thermes de Spa Colline d'Annette et Lubin, 4900 Spa
홈페이지	https://www.thermesdespa.com/accueil/
소개	온천도시인 스파 지역 내 스파시설

o Walibi

도시명	와브르
주소	Boulevard de l'Europe 100, 1300 Wavre
홈페이지	https://www.walibi.be/fr
소개	벨기에 놀이동산

◦ Aqualibi

도시명	와브르
주소	Boulevard de l'Europe 100, 1300 Wavre
홈페이지	https://www.aqualibi.be/en
소개	워터파크
비고	벨기에 놀이동산 Walibi 내 위치

◦ Ravenstein The Royal Golf Club of Belgium

도시명	테르뷰렌(Tervuren)
주소	Koninklijke Wandeling 1, 3080 Tervuren
홈페이지	https://www.rgcb.be/
소개	1905년 개장한 브뤼셀 근교 골프장

◦ Basic Fit

주소	벨기에 전역
홈페이지	https://www.basic-fit.com/
소개	벨기에 전역에 있는 헬스장 체인으로, 한 곳 가입시 전국의 모든 가맹점 이용 가능

<자료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년 연휴	2024-01-01	2024-01-01
성 목,금요일(Maundy Thursday·Good Friday)	2024-03-28	2024-03-28
성 목,금요일(Maundy Thursday·Good Friday)	2024-03-29	2024-03-29
부활절 연휴(Easter Monday)	2024-04-01	2024-04-01
노동절 (Labor Day)	2024-05-01	2024-05-01
예수승천일 연휴(Ascension Day)	2024-05-09	2024-05-09
예수승천일 연휴(Ascension Day)	2024-05-10	2024-05-10
성령강림절(Pentecost)	2024-05-20	2024-05-20

벨기에 국경일 (Belgian National Day)	2024-07-21	2024-07-21
벨기에 성모승천일	2024-08-15	2024-08-15
성모승천일 연휴 (Assumption Day)	2024-08-16	2024-08-16
모든 성인의 날 연휴 (All Saints Day)	2024-11-01	2024-11-01
성탄절 연휴 (Christmas)	2024-12-25	2024-12-25
성탄절 연휴 (Christmas)	2024-12-26	2024-12-26

10. KOTRA 무역관 안내

○ 브뤼셀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브뤼셀 무역관은 EU 집행위가 위치한 슈만(Schumann)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EU 집행위 바로 옆 건물 3층), 세부 주소는 아래와 같다. 무역관 건물 도착 후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면 무역관과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이 승인된다. 방문 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미리 협의해 둘 것을 권한다.

- 주소: Rond-point Robert Schuman 11, 1040 Brussels, Belgium
- 전화번호: +32-2-203-2142
- 팩스: +32-2203-0751
- 이메일: kotrabru@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1) 브뤼셀 국제공항(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찾아오는 경우

- 기차
 - 공항 Level-1 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기차역과 브뤼셀 슈만역(Bruxelles Shumann) 간 연결되는 기차 편이 있으며, Brussels City로 가는 Airport Line을 이용
 - 운행 시간: 4:30~ 22:30
 - 운행 간격: 매 5~20분 간격
 - 소요 시간: 15~35분 내외
 - 요금: 10.30 유로(2등석 성인 기준)
- 택시
 - 공항 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 시간: 약 30분(14km)
 - 요금: 약 25~35유로
- 버스
 - 공항 Level-0에서 12번, 21번을 타고 브뤼셀 슈만역에서 하차
 - 소요 시간: 40분~1시간

2) 브뤼셀 미디역(Gare du Bruxelles-Midi /Station Brussel-Zuid)에서 찾아오는 길

- 지하철(Metro)
 - 1호선 또는 5호선 슈만역(Shumann)에서 하차
- 택시
 - 역사 앞에서 택시 승차
 - 소요 시간: 약 15분(6.6km)
 - 요금: 20~30유로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브뤼셀 자동차 전시회(Salon Auto)	2024-01-17 ~ 2024-01-21	브뤼셀엑스포 (Brussels Expo)	Febiac
제임스 앙소르 전시회	2024-02-22 ~ 2024-06-02	벨기에왕립도서관 (KBR)	벨기에왕립도서관, 벨기에왕립미술관
유럽 사이버보안 박람회(Packaged Summit)	2024-05-29 ~ 2024-05-30	브뤼셀엑스포 (Brussels Expo)	Jaarbeurs
유럽 수소 위크(European Hydrogen Week)	2024-11-18 ~ 2024-11-22	브뤼셀엑스포 (Brussels Expo)	EU집행위, Hydrogen Europe, Clean Hydrogen Partnership
메이드인 아시아(Made in Asia)	2024-10-19 ~ 2024-10-20	브뤼셀엑스포 (Brussels Expo)	Heroes 유럽 문화 이벤트 네트워크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